

# 朝鮮時代 顯宗, 肅宗, 景宗, 英祖의 疾病과 治療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李海雄 · 金勳

## About the Diseases and Medical Treatments of King Hyeonjong, Sukjong, Gyeongjong, Yeongjo in the Joseon Dynasty

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Lee Hai-Woong · Kim Hoon

1. King Hyeonjong(1641-1674) mainly suffered from eye disease and abscess. He specially took a hot spring bath for cure of eye and skin problems. He probably died of septicemia and the following gastro-intestinal infection at the age of 34, quite early for his age.

2. King Sukjong(1661-1720) was not very well all through his life, but lived quite longer than other Kings in the Joseon Dynasty. He suffered from various diseases like heart-based heat, abscess, edema,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etc. He frequently took the treatment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e presumably died of dysfunction of liver and kidney at the age of 60.

3. King Gyeongjong(1688-1724) suffered from political problems from birth to death, so he may have had excessive mental stress for his poor health. He mainly suffered from heart-based heat and abscess. It is quite not sure why he died in only one month from the onset of his symptoms, so many people thought that he was poisoned to death. He probably died of septicemia and the following gastro-intestinal infection at the age of 37.

4. King Yeongjo(1694-1776) lived for 83 years, which is the longest of all the Kings in the Joseon Dynasty. He mainly suffered from hypofunction of gastro-intestinal system with cold symptoms, coughs, uneasiness. He took various kinds of herbal medicine, of which he took ginseng the most. He is supposed to be dead due to his old age at 83.

Key Words: Joseon Dynasty, King, Diseases, Medical Treatments, Hyeonjong, Sukjong, Gyeongjong, Yeongjo

21세기 들어 선진국의 문턱에 접어든 우리나라

### 1. 서론

에도 이제 웰빙(well-being)이라는 이름으로 의식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과거와

\*교신저자: 金勳,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051) 850-8652, hkim@deu.ac.kr

는 확연히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부단히 이어온 개발정책은 공업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생산과 소비를 이루어 내었고 이와 더불어 발달한 과학기술의 혁신은 인류에게 많은 문명의 이기를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문화의 확산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 환경 변화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나날이 축적된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과거에는 자주 볼 수 없었던 성인병, 면역질환, 바이러스질환 등의 위험이 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조만간 초고령화 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생명의 영위나 연장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웰빙'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의학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의사학교실에서 추진하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질병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시대 모든 군왕의 질병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면 궁중의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의학사의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韓醫學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자료로 삼은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하나로 지정된 바 있다. 이것은 근대 이전 봉건시대의 개인적 질병사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각 시대 임금들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 당대 의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歷代 朝鮮時代 君王들의 疾病에 관한 研究는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1991년에 洪性鳳이 한국인구학회지에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이라는 논문<sup>1)</sup>을 실으면서 조선의 전체 임금들에 대한 질병과 사인을 통시적으로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朝鮮時代 君王들의 疾病에 관한 본격적인 研究로서는 金勳의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sup>2)</sup>가 처음이다. 金勳은 朝鮮 前期의 임금인 太祖부터 成宗까지 9명의 임금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朝鮮時代 君王들의 평균수명과 사인<sup>3)</sup>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研究方法論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尹漢龍과 尹暢烈의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sup>4)</sup>가 있고, 이후 2003년 拙著 '朝鮮時代 明宗, 宣祖, 光海君의 疾病에 대한 研究'<sup>5)</sup>가 있으며, 金勳의 '朝鮮時代 孝宗의 질병 및 死因에 관한 考察'<sup>6)</sup>과 '朝鮮時代 仁祖의 질병에 관한 考察'<sup>7)</sup>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의 통시적인 연구로는 2005년 후반기에 나온 김정선의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이 있으나 개별 임금들의 질병은 매우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단행본으로는 강영민의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sup>8)</sup>가 있는데 體系的으로 研究한 전문서는 아니다. 이덕일은 1998년 『누가 왕을 죽였는가』라는 책에서 조선시대 왕들 중 몇몇은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 하였으며, 근래 책을 개정하여 『조선 왕 독살사건』이라고 하였는데<sup>9)</sup>, 임금의 죽음을 역사정치적

- 1)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한국인구학회지. 제14권 제1호. 1991. pp. 35-46.
- 2) 金勳.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 3) 金勳.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p. 13. 조선시대 군왕들, 즉 太祖부터 順宗까지 스물일곱 명의 임금의 평균 재위기간은 19년 2개월, 평균 수명은 47세이다.
- 4) 尹漢龍, 尹暢烈.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1). pp. 125-151.
- 5) 李海雄. 朝鮮時代 明宗, 宣祖, 光海君의 疾病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 6) 金勳. 朝鮮時代 孝宗의 질병 및 死因에 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권 2호. pp. 129-144.
- 7) 韓國醫史學會誌. 2005. 18권 2호.
- 8)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 9)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 푸른역사. 1998.

측면으로 고찰한 것이 특징이다. 本 論文에서는 이전의 연구를 계승하여 朝鮮 中期의 대부분을 차지한 顯宗, 肅宗, 景宗과 朝鮮 後期로 접어드는 英祖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해 『朝鮮王朝實錄』의 史料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2. 顯宗의 疾病과 治療

顯宗(1641 인조18년-1674 현종15년)은 조선 제18대 임금으로 諱는 淵이며 字는 景直이고, 孝宗과 仁宣王后 張氏 사이의 유일한 아들로, 인조 18년(1641)에 태어났다.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인 명성왕후 김씨를 부인으로 맞아 1남 3녀의 자식을 얻었다. 효종 10년에 효종이 승하하자 19세로 제18대 국왕에 즉위하였다.

즉위한지 한 달 정도 지난 19살(1659) 6월 8일에 상이 학질을 앓았다고 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또 학질을 앓아 기력이 떨어지므로 약방에서 白朮 가루에 桂薑으로 丸藥을 지어드릴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고, 약방에서 제차 補藥을 드실 것을 청했다고 되어 있다. 8월 16일의 기록에는 현종이 부왕인 효종의 상례에 임하여 지나치게 애도함으로써 몸이 편찮은지 4개월이나 되었다 하였고, 8월 24일에는 상이 편찮은지 한 달이 넘도록 시름시름 낫지 않고 있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顯宗은 효종이 승하하기 전부터 병간호와 國事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몸을 많이 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력이 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正氣損傷으로 인한 脾胃虛損 및 外感瘧疾로 고생을 조금 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는 8월 16일에 기침과 오싹오싹한 증세가 모두 달한 것 같다고 상이 말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瘧疾이란 가벼운 外感으로 인한 惡寒, 寒熱往來 및 筋肉痙攣 등의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따라서 處方도 傷寒이나

溫病처방이 아니라 脾胃損傷과 약간의 外感을 돌봐 주는 白朮, 桂枝(或 肉桂), 生薑 등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위 1년 이후부터 안질과 종기 때문에 침과 뜸치료를 많이 받았던 기록이 나온다. 즉위 1년 2월 8일에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통해 안질에 특효약인 空靑<sup>11)</sup>을 구해오도록 하였다<sup>12)</sup>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질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18일에는 눈꼬리에 이물감을 느껴 손으로 문지르니 막히고 아픈 증세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증세를 적시하고 있으며, 6월 9일에 발에 종기가 생겨 침을 맞았는데, 6월 25일에는 머리에 종기가 나서 땀을 뺐고, 6월 27일에는 혹독한 더위에 머리, 손, 발에도 환부가 있다고 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발에 가려움이 심하여 散鍼을 맞았다고 한다. 7월에도 머리, 발, 목 등의 종기로 침, 뜸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연말까지 침과 뜸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헐적인 치료와 재발의 반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 2년(21세) 4월 25일에는 부스럼으로 땀을 뜬 기록도 있다, 7월 14일에는 눈병으로 經筵<sup>13)</sup>을 중지할 정도였으며 眼胞에 偷鍼瘡이 생길 정도로 심해져, 동 22일에는 仁慶宮<sup>14)</sup>의

11)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203. 空靑; 本草名. 神農本草經. 淸油羽, 양매청(楊梅靑)이라고도 한다. 碳酸鹽類 광물인 鹽銅鑛石. 甘酸, 寒하고, 약간의 毒이 있으며, 肝經으로 들어가고, 明目去翳·祛風和絡한다. 靑盲·雀目·翳膜內障·赤眼腫痛 및 中風으로 인한 口眼喎斜·肢體麻木不仁을 치료한다.

12) “약방이 들어와 진찰할 때에 도제조 이경석(李景碩)이 진달하기를, ‘뜰간대 공청(空靑)이 안질(眼疾) 치료에는 기막힌 특효약이라고 하는데, 서촉(西蜀)과 진주(辰州)에서만 생산되어 중국에서도 지극히 귀하다고 합니다.……’(현종 1년 2월 8일).

13)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궁중 문화. 들녘. 서울. 2002. pp. 28-29. 經筵: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신하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궁중에 불러 경적(經籍)과 사서(史書) 등을 강론케 하던 일.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서울. 知文閣. 1968. p73.) ‘왕과 양반 관료들은 국정의 많은 부분을 경연에 할애함으로써 유교적인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시대 문치주의의 특징은 여기에 농축되어 있다.’

14) 이조때 원종(元宗-인조의 아버지)의 사저(私邸)로 사용되던 궁궐. 지금의 사직동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 1616년(광해군 8) 창건.(7번 각주의 國史大事典. p. 1246.)

이덕일. 조선 왕 독살사건. 서울. 다산초당. 2005.

10) 柳凝我的 ‘瘧疾의 症狀과 機轉에 대한 文獻的 考察’(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을 참조.

椒井<sup>15)</sup>에서 5일동안 4회에 걸쳐 목욕도 하였다. 현종은 즉위초부터 기록되어 나오는 안질과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해 鍼, 뜸 외에 목욕요법까지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종 3년(22세)에는 5월 2일에 침치료를 받았고, 8월 6일에 안질로 침을 맞고, 13일에 습창으로 온천욕을 고려하였으며, 29일에는 감기로 땀을 흘린다고 하였다. 심하진 않으나 안질과 피부질환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4년(23세) 2월에 脣瘡의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입술에 생긴 부스럼이나 물집 등의 증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포진<sup>16)</sup>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현종이 안면부 종기나 안질을 자주 앓았던 것은 단순포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로도 안질과 종기로 잦은 침구치료를 받았다. 현종 6년에는 다리에 습창에 생기고 손부위의 종기와 가슴, 등, 머리에도 종기가 생겨 온양 온천으로 거동하여 온천욕을 시행한 기록이 나타난다. 4월 6일에 가슴, 등, 머리의 腫氣와 眼疾, 核患으로 약방에서 온천욕을 계청하고 있는데 4월 17일에는 드디어 온양온천에 거동하고 있다. 6월 19일에는 眼疾이 나은 것을 종묘에 고하였는데, 이를 보면 종기와 안질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묘의 의식이 관습적인 측면에서 행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온천욕 자체가 가

지는 질병 치료 효과에 더하여 일상에서 탈출하여 여행과 휴양을 함으로써 가지는 정신적 일탈이 큰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해에도 계속 종기와 안질이 재발하여 침구치료를 하고 4월 1일에는 다시금 온양에서 온천욕을 하게 된다. 이후 몇 년 동안 자주 온양행궁을 한 것으로 보아 온천욕의 효과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는 않은 것 같다. 현종 7년 11월 10일에는 “상이 왼쪽 눈이 빨갱고 꺾끄러우며 가린 막이 있어서 침을 맞았다.”<sup>17)</sup>고 되어 있다. 이때의 눈병은 상당히 급성병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결막염의 급성 증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9년(28세)에는 2월 15일에는 목 부분에 核患을 앓았는데 玄蓼<sup>18)</sup>酒가 核患에 좋다고 건의한 기록<sup>19)</sup>이 나타난다. 이후 턱 아래의 응어리에 대한 치료가 많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다. 동년 9월 29일부터 다시 편찮은 기색을 나타냈는데 10월 7일 기록에 喘息으로 매일 땀을 뺀다는 것으로 보아 기관지, 폐의 기능도 쇠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10년(29세) 8월 4일에는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걷기 불편하여 鍼을 맞았다고 하였다. 8월 15일에는 다리 당기는 증상은 좀 낫지만 다른 증세는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고, 응어리의 환부는 좀 덜한 것 같다 하며 三里, 絶骨<sup>20)</sup> 부위에 뜸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리의 마비증상과 당기는 증상으로 보아 허리부터 내려가는 신경의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진 않지만 골반, 허벅지, 장딴지 부위 등의 뼈나 근육의 문제로 인

15) “상이 이르기를, ‘조정(椒井)에서 씻어보면 어떻게 될까? 선왕께서도 일찍이 효험을 거두신 적이 있었다.’ 하였다. 조정은 옛 인경궁(仁慶宮) 안에 있었는데 자연의 경관이 수려했으며, 부마(駙馬) 3인의 저택이 그 속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이를 데 없이 사치스러웠다. 효종 대왕이 언젠가 조정에서 목욕하면서 그 저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상이 가보고 싶어서 은근히 핑계대고 물어본 것이었다.(현종 2년 윤7월 17일).

16) 김성권 외 편역. 평생가정간강가이드. 이지케어텍(주). 서울. 2003. p. 291. 단순포진은 주로 입술이나 성기 주변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부나 점막에 작고 통증을 동반한 수포 형태로 나타나며, 수포와 접촉하면 전파된다. 그러나 감염된 이후에도 면역력은 생기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신경에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다가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을 앓는 경우 재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는 중증으로 자주 발생한다. 여러 상대와의 부분별한 성교가 위험 요인이다. 주로 입술, 구강, 얼굴에 감염을 일으키는 1형과 성기 주변에 감염을 일으키는 2형이 있는데, 두가지 형 모두가 눈을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17) 현개 7년 11월 10일.

18)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pp. 298-299. 玄蓼: 【성미】 苦鹹涼 無毒 【효능】 養陰生津 瀉火解毒 咽喉腫痛 口乾 癩癧 또는 溫病發斑 등의 증을 다스린다.

19) “상이 침을 맞은 후 약방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상이 핵환(核患)을 앓아 누군가 현삼주(玄參酒)가 핵환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다고 권하자, 상이 일렀다. ‘비록 좋은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입에도 못 대니 어찌겠는가.’”(현종 9년 2월 15일)

20) 奇穴로서 絶骨(部位: 丘墟穴上約1.5寸處 主治: 足部脫疽,) 도 있으나(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 <下>. 서울. 集文堂. 2001. p. 925.) 여기서는 懸鍾(G39)의 異名인 絶骨로 생각된다.(足外踝上3寸動脈中. 같은 책. p. 652.)

한 신경증상으로 보이며, 좌골 신경통으로 추측된다. 응어리의 환부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腫氣 등의 증상이 생긴지 조금 되었음을 시사하는데, 8월 23일 기록에 “턱 아래 좌우에 난 응어리가 점점 커지고 피부가 수척해져 탕약도 잘 드시지 못했으므로 신하들이 걱정하였다.”<sup>21)</sup>는 것을 보면 응어리의 환부란 턱 아래 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쪽 목 부위에 응어리를 나타내는 주된 질병으로는 목의 림프절 종창<sup>22)</sup>과 갑상선종<sup>23)</sup>을 들 수 있는데, 현종이 감염성 질환을 자주 앓은 것과 남성이고 30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응어리는 목의 림프절 종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속 뜸치료를 시행하고, 약을 먹다가, 9월 1일에는 약방이 진찰하고 상의 열이 높다고 뜸치료를 중지하였으며, 맥도 허약하고 밥맛도 없고 구역질을 하는데 진맥후 痰火라 하며 六君子湯<sup>24)</sup>을 권하였다고 되어 있다. 9월 7일 기록에는 “상이 수라를 싫어한지 이미 닢달째여서 육체가 수척해 있었다”<sup>25)</sup>고 하고 9월 말까지 中脘에 뜸치료가 이어

졌다. 헛구역, 식욕부진, 脈弱, 體瘦 등의 증상을 보면 脾胃機能 虛損에 따른 痰飲과 虛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六君子湯을 진어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11월 17일에는 오른쪽 턱 腫氣를 침으로 따게 되었고, 이후 缺盆<sup>26)</sup> 근처 腫氣, 왼쪽 턱 아래 고름, 風池穴 근처 腫氣, 오른쪽 缺盆 結核處의 고름을 鍼으로 뜸 기록이 보인다. 中宗 때 治腫廳이 설립되어 治腫醫를 둔 이후로 외과술을 중시하였으며<sup>27)</sup> 仁祖 때는 治腫教授라는 직책까지 있었다는 것을 볼 때<sup>28)</sup> 종기를 치료하는 외과가 따로 독립하여 상당한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 22일에는 補中益氣湯을 지어 올리고, 12월 11일과 12일에는 가슴에 담이 막혀 소화가 안되어 鳩尾穴에 뜸을 떴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脾胃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때 補中益氣湯은 中氣를 보하면서 오래된 虛損으로 인한 종기의 內托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13년(32세) 1월 2일에 ‘동지 후부터 기운이 위축되고 항상 한기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1월 3일에는 수라들기 싫은 증세가 전과 같다고 하고, 4일과 6일에는 증완혈에 뜸을 떴다는 기록을 볼 때, 脾胃虛寒으로 인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뜸치료가 이어지다 2월 1일에는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結核이 굵아서 침을 맞았다고 하는데 앞서와 같이 굵은 부분을 침으로 따서 고름을 뺀 것으로 생각된다. 2일에도 침을 맞았다. 4월 6일에 증완혈과 전중혈에 뜸을 떴으며 이후 뜸치료는 거의 9월 초까지 계속된다. 5월 1일에는 종기를 터뜨린 후 옥후가 노곤하여 진찰을 받았고, 7월 2일에는 목에 있는 종기가 굵아서 침을 맞았다. 10월과 12월에도 각각 한차례씩 뜸을 떴다고 되어 있다. 현종 14년(33세) 1월 6일에는 팔의 통증으로 뜸을 떴다는 기록이 보이

21) 현종 10년 8월 23일.

22) 림프절이 커지는 것(종창)은 흔한 증상이다. 하나의 림프절, 한 그룹의 림프절 또는 모든 림프절들이 침범되기도 한다. 림프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있으면 흔히 부으며 피부에 가장 인접해 있는 목,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림프절 종창은 대개 국소적인 세균 감염의 결과이다. 감염으로 인한 대부분의 림프선병증에서 종창은 대개 감염이 없어짐에 따라 가라 앉는다. 감염으로 인한 림프절의 종창은 대개 통증을 수반한다. (김성권 외 편역. 평생가정건강가이드. 이지케어텍(주). 서울. 2003. p. 458.)

23)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면 목 앞쪽이 부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갑상선종이라 한다. 크기는 알아보기 힘든 정도부터 사과 크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갑상선은 종종 갑상선 기능에 관계없이 사춘기와 임신부에서 커질 수 있다. 갑상선종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결절 그리고 갑상선염의 일부에서 동반될 수 있다. 갑상선 질환은 대개 여성에게 잘 발생하는데, 기능항진증은 20~50세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호발하며, 기능저하증은 대부분 40세 이상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흔히 발생한다.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40~60세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호발하고, 갑상선암은 40세 이상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흔하다. (각주 22의 김성권의 책. pp. 679-683.)

24) 六君子湯: 기허로 인한 담성증 비허담탁 비신양허로 인한 내상해수 만성기관지염에 쓴다. 半夏 白朮 各 5.625g 人參 白茯苓 陳皮 甘草 各 3.75g 生薑 3片 大棗 2枚. (李珣九, 鄭昇紀 編. 동의제계내과학. 서울. 아트동방. 1996. p. 453.)

25) 현종 10년 9월 7일.

26)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上>. 集文堂. 2001. pp. 360-361. 缺盆(S12) 部位:肩 橫骨 陷中 取穴:鎖骨上窩陷中, 鎖骨上緣中點

27)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66. p. 287.

28) “……이 밖에 임시 설치한 천문(天文)·지리(地理)·명과(命課)의 교수(教授), 치중 교수(治腫教授)·도안청 낭청(都案廳郎廳)을 합하여 모두 1백 65명입니다.”(인조 11년 7월 12일)

고 3월 말까지 꾸준히 뜸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4월 15일에는 턱밑 풍오리가 생겨 굵아서 침으로 터뜨렸다고 하고, 5월 1일에는 왼쪽 귀 밑 멍을 때문에 침을 맞았다고 하며, 7월 1일에는 무릎酸痛 때문에 뜸을 떴고, 7월 9일에는 안질 때문에 침치료를 하여 11, 15, 16일까지 침을 맞았다고 되어 있다. 8월 14일에는 요통으로 뜸을 떴는데 거의 9월 초까지 뜸치료를 한 기록이 있다. 9월 11일에는 다시 안질로 침치료를 시작하여 3일간 치료하였고, 9월 18일에는 다리酸痛으로 뜸을 연일떴다고 하는데 앞서의 무릎의 문제로 보인다. 9월 29일에는 寒疾이 잠깐 나왔다가 허리통증이 다시 심해졌다고 하며, 9월 30일에도 요통이 계속되었다. 이후 잠잠하다 12월 26일과 27일, 29일에 안질로 침치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질병인 종기와 안질외에 팔과 무릎, 허리의 통증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뜸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만하다. 아마도 虛寒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아 뜸치료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15년(34세)에는 1월 4일에 뜸을 떴다고 하는데 1월 10일 기록에 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연일 뜸을 떴다고 한 것으로 보아 1월 초부터 손가락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1월 21일과 23일에도 뜸치료를 받았다. 증상으로 보아 손가락 관절의 염증으로 생각된다. 앞선 해의 허손으로 인한 근골격 질환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나, 원인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2월 8일과 13일에는 쑥뜸으로 인한 종창으로 침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 때의 쑥뜸이 1월달에 치료한 손가락의 뜸치료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는 없으나 작년과 같이 근골격질환과 비위허손에 대한 뜸치료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2월 24일에 “이때 상의 건강이 오래도록 좋지 않은 상태에서 뜸 뜬 자리의 종기 역시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며칠동안 계속 시약하며 수라도 전혀 들지 않다가 갑자기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아랫사람들이 모두들 걱정하였다.”<sup>29)</sup>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 때 그동안의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왕대비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겪하게 된 것<sup>30)</sup>으로

생각된다. 3월 6일에는 목이 잠기고 두통에 오한증세가 있고, 이후에 위가 나빠서 염려스럽다고 하며, 음식이 가슴에 적체된 증상으로 뜸을 떴다<sup>31)</sup>, 다리 습창으로 鍼을 맞는 등 수차례에 걸쳐 침뜸치료를 받았다. 7월 8일에는 치통이 있었고, 7월 24일, 27일, 28일에는 복통으로 뜸치료를 받았는데<sup>32)</sup>, 8월 1일에는 복통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하고, 8월 7일에는 복부가 멍기고 아픈 증세는 좀 덜했으나 점점 더 피곤하여 인삼차를 복용하였다고 하는데, 오후 들어서 맥박이 빨라지고, 살갓이 뜨거워지고, 요통이 있어 解表劑를 올렸다고 되어 있다. 8일에는 상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밤새 괴로워했다고 하고 9일에는 열이 나는 증후가 학질 같아서 새벽(卯時)에 鍼을 맞았다. 10일에는 고통스럽고 변열이 계속되고 헛배가 부어 오르고 대변이 묽고 잣으며 소변이 불리하여 分利劑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14일에는 변열, 설사등의 증세가 심해져서 柴苓湯<sup>33)</sup>을 권했다고 하는데 실제 진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오한, 고열 및 측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며, 그 외 빈뇨와 배뇨통 같은 방광자극 증상과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보아 급성 신우신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의심된다. 15일에는 증세가 더욱 위독해졌고 이날 밤에 상이 좌승지 이합과 영의정 허적을 찾은 것으로 보아 아직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16일에는 때때로 인삼차를 복용하고 종일 혼미하여 의식이 왔다 갔다 하여 종일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도 여전히 위급하였는데, 이합과 허적이 들어가 진찰하고 설사가 줄었는지 물었는데 답하기를 줄었는지 모르겠다고 하

30) “축시에 왕대비 張氏가 會祥殿에서 승하하였다.”(현종 15년 2월 23일)

31) “상이 음식이 가슴에 적체된 증세로 하여 뜸치료를 받았다.”(현개 15년 3월 15일)

32) 顯宗실록에는 ‘鍼을 맞았다’고 하고, 顯宗개수실록에는 ‘복통으로 뜸치료를 받았다’ 하는데 침뜸치료를 모두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 정황상 뜸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33)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8冊. p. 300. 柴苓湯: 【方源】保嬰撮要 【組成】柴胡 黃芩 豬苓 澤瀉 茯苓 白朮 各1錢5分 【主治】①保嬰撮要 痘疹, 小便不利 ②景岳全書 身熱, 煩渴, 泄瀉

29) 현개 15년 2월 24일.

여 이 때 좀 의식이 돌아온 듯하다. 18일에는 혼수에 빠져서 백회혈에 뜬을 뺐다고 기록되어 있다. 저녁이 되어 인삼차를 마시고 질문에 대답을 하였으나 숨이 차서 목소리가 분명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인삼차를 냉약에 타서 올리자 조금 들고 '물러들 가라'고 하였는데 이를 마지막으로 밤 해시에 昌德宮 齋廬에서 나이 34세, 재위 15년을 일기로 승하하였다.

사인은 중기, 중창에 의한 패혈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복통과 설사를 동반한 것으로 보아 패혈증의 합병으로 위장관감염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른 의견으로 현종의 사인은 당시 권력에서 밀려난 서인에 의한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두 번의 예송논쟁을 거치면서 정파에 얽매어 임금까지 무시하고 송시열의 뜻을 따르려 하는 서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현종이 남인의 허적을 영의정으로 삼고 권력의 축을 남인으로 옮기려 할 때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되었고 정황상 서인들이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평소 현종이 안질과 중기로 고생을 했던 점과 중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독살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종은 즉위한 이래로 거의 매년 중기와 안질에 시달렸고, 중기의 부위는 주로 머리, 얼굴, 목, 턱 주위였다. 그 밖에 습창, 핵환, 순창, 투침창 등의 기록이 보인다. 안질에는 주로 침치료를 시행하였고, 중기 등의 피부질환의 치료는 주로 침과 뜸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름이 생기기를 기다렸다 침으로 따고 뜸을 뜨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중기는 조선시대 임금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편인데, 현종에게 특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과도한 정신적 압박감과脾胃虛弱 등에서 비롯된 正氣虛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와 안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섯 번의 온천욕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온천욕은 때로 많은 효험을 보았으나 대체로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팔의 통증, 손가락 창통, 요통 등의 질환에는 주로 뜸치료를 하였다. 또한 비위허냉, 비허설사, 비기허 등의 내상으로 인한 설사, 痰火

등의 증세에 구미혈과 중안혈에 뜸치료를 하고 약물치료를 겸하여 六君子湯, 黃芪人蔘茶, 補中益氣湯을 진여한 기록을 볼 때 전반적으로 현종 대에는 침과 뜸치료를 위주로 하였고 약물치료도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에는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말기에 가서는 분리제, 인삼차, 시령탕 등이 언급되고 있어 내상을 겸한 중증에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肅宗의 疾病과 治療

肅宗(1661 顯宗2년-1720 肅宗46년)은 조선 제19대 임금으로 諱는 焯이며 字는 明普이고, 顯宗과 明聖王后 金氏 사이의 유일한 아들로, 顯宗 2년(1661)에 태어났다. 광성부원군 김만기의 딸인 인경왕후 김씨를 비롯하여 9명의 부인에게서 6남 2녀의 자녀를 얻었다. 14살인 顯宗 15년에 顯宗이 승하하고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숙종은 어린 나이인 14살에 왕위에 올라 직접 정사를 맡아 보았으나 여전히 남인과 서인의 정치세력 사이에서 힘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위년(1674) 하반기에는 상을 당한 슬픔과 哭泣으로 인한 체력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크게 건강에 무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1년(15세)에는 10월 22일 기록에 임금의 병환이 심해져 손이 싸늘하고 六脈이 縮伏하였다고 하였으며 다음날인 23일에는 얼굴이 붉고 열이 심하며 반점이 있었다고 하였고, 저녁 후에는 두통과 번열이 더하고 밤이 깊을 뒤에 열이 극성하였는데 새벽에 땀이 조금 나고서 약간 차도를 보였다고 나타난다. 이로 인해 허적 등은 천연두를 의심하여 주사<sup>34)</sup>를 복용토록 하였고, 27일에는 임금의 병이 더욱 나았다고 하였다. 천연두 보다는 가벼운 풍진<sup>35)</sup> 등의

34)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p. 361. 朱砂: 天然의 辰砂礦石이다. 甘·涼, 有毒. 鎮心安神·定驚解毒

35) 김성권 외 편역. 평생가정건강가이드. 이지케어텍(주). 서

감염성 질환에 걸린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2년(16세) 3월 17일에는 구역의 조짐이 있다고 하였으나 전후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과성의 가벼운 소화기장애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9월 25일에는 임금이 5, 6일 전부터 편치 못한 증후가 있더니, 이제 黃疸로 변하고 증세도 가볍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 27일에는 임금이 직접 하교하여 병이 조금 낫지만 하루 이틀 지나야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0월 3일에는 아직 환후가 낫지 않았다고 하고, 11월 8일에는 영의정 허적이 임금의 몸을 조섭하는데 신중하도록 청하였고, 11월 11일에는 女色을 깊이 경계하라는 상소가 있었다. 여기서 黃疸은 급성간염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며, 보건위생의 문제로 나타나는 A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sup>36)</sup>. 숙종 4년(18세)에는 2월 3일에 임금이 편치 않았다고 2월 28일에는 ‘上候가 오래도록 편찮으시어 藥房提調 이가 대내에서 直宿하며,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 診脈한 지가 거의 數十日이 되어 온나라가 근심하고 漑漑하더니, 이에 이르러 편안해지시어 藥房이 직숙을 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2월을 전후하여 많이 아팠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다만 1월 15일 기록에 성안에 痘患이 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혹 전염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할 뿐이다. 3월 6일에는 병이 나았으므로 예조에서 종묘에

고할 것을 청하고 있다. 이후 7월에 잠깐 편찮았는데 하반기는 몇 번의 입진이 있었으나 비교적 잘 지낸 것으로 보인다. 숙종 5년(19세)에는 8월과 11월에 감기에 걸렸으며, 11월 말에는 해수로 음식먹기를 싫어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가을 겨울 들면서 감기에 걸리고 후유증으로 해수와 식욕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6년(20세) 10월 26일에는 첫 부인인 인경왕후가 痘疹으로 세상을 떠났다<sup>37)</sup>. 이 때 기록에는 임금이 야간에 구토하고 배와 가슴에 통증이 조금 있어서, 의관이 진찰하고 두창약을 의논하였다고 한다. 당시 숙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痰飲과 心下痞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간에 두창이 유행하였으며 인경왕후도 두진으로 죽었기 때문에 약방에서 두창약을 의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기록이 없으므로 두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8년(22세) 3월 7일에는 병을 무릅쓰고 사신을 맞아 칙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숙종 9년(23세) 10월 13일 성내에 痘疾이 크게 번지고 있었다고 하였고, 18일에는 임금이 두질에 걸렸다<sup>38)</sup>고 하였으며, 20일에는 반점이 나타났고, 23일에는 드디어 환부가 起脹하였고, 25일에는 붉은 기운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10월 27일에는 환후가 심해져서 혼미한 상태로 턱만 끄덕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다행히 이후 조금씩 회복되어 11월 1일에는 비로소 딱지가 떨어졌다고 하였고, 11월 17일에는 종묘와 사직에 경사를 고하고 진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질, 두창은 천연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肅宗 6년에 인경왕후를 두창으로 보낸 바가 있어서 왕실 내부에서도 두창에 대한 무서움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숙종은 두질을 앓을 당시 아직은 기혈이 왕성한 연배였기 때문에 두창을 이겨서 위험한 상황을 잘 넘긴 것이다. 한편 肅宗을 위해 지극히 기도하던 왕대비 김씨가 무리한 탓인지 환후가 위독해져서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sup>39)</sup>. 따라서 肅宗은 두질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을. 2003. p. 294. 풍진: 감염 후 2-3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 귀 뒤와 뒷목의 림프절이 붓고, 어떤 환자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포함한 몸 전체의 림프절이 부음. 2-3일 후 분홍색의 가렵지 않은 발진이 얼굴에 먼저 생기고 몸으로 퍼지며, 대개 3일 내에 사라짐. 어린이는 경미한 발열만을 보이지만 청소년이나 성인인 경우 고열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36) 해리스내과학편찬위원회 역. HARRISON'S내과학. 서울. 정담. 1997. p. 1577. 원인균은 전적으로 fecal-oral 루트에 의하여 전파된다. HAV의 사람 대 사람(person to person) 전파는 불결한 개인위생과 인구과밀에 의하여 증진되며 큰 발생이나 산발형 예는 오염된 음식, 물, 우유 및 조개에 의하여 발생된다. 가족 내 및 학교 내 감염이 흔하며 초기 역학적 관찰은 감염 A가 호발하는 때가 늦가을과 초겨울이다.……일반 인구에 있어서, 과거에 HAV 감염의 주요 표식자인 anti-HAV는 나이가 증가하거나 사회경제적 상태가 나빠지면 그 빈도가 증가한다.

37) “2경(二更)에 중궁(中宮)이 경덕궁(慶德宮)에서 승하(昇遐)하였다.”(숙종 6년 10월 26일)

38) “임금이 불예(不豫)하였으니, 곧 두질(痘疾)이었다.”(숙종 9년 10월 18일)

전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되므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는 무릎의 질환, 정신적 충격으로 뜸치료를 자주 받은 기록이 나온다. 특히 숙종 14년(28세)에는 7월 16일에 “이때에 임금의 노여움이 爆發하여 점차로 번뇌가 심해져, 입에는 꾸짖는 말이 끊어지지 않고, 밤이면 또 잠들지 못하였다. 內醫院의 問安에 批答하기를, ‘마음이 답답하여 숨쉬기가 곤란하고 밤새도록 번뇌가 심하여 자못 收拾할 수가 없다.’ 하니, 提調 등이 診視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마음의 병이니, 脈에는 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 구구하게 醫藥으로 치료하겠는가?’ 하였다.”<sup>40)</sup>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남인과 서인 사이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반목과 政爭, 대왕대비 환후의 위독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8월 26일에는 인조대왕의 두 번째 부인이자 대왕대비인 장렬왕후 조씨가 승하하였는데, 대왕대비의 죽음에 슬퍼하는 임금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나타난다<sup>41)</sup>.

숙종 15년(29세)에는 9월에 감기를 앓았다는 기록이 보이고, 숙종 16년(30세)에는 2월에 중완혈에 뜸을 뜬 기록이 보이며, 숙종 17년(31세)에는 臍中痰核 때문에 뜸을 뒀다고 하며, 숙종 18년(32세)에는 1월에 한차례 뜸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 시기는 소화기 증상이 간혹 문제가 될 뿐 크게 아팠던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臍中痰核이라는 것이 복부 痰積을 가리키는 것인지, 배꼽 주위의 종기를 이르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痰核을 核患으로 보아서 피부질환일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20년(34세) 7월에 좌의정의 차자에 지난번에 상의 종기증세가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편해졌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위는 알 수 없으나 종기로 잠깐 고생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21년(35세) 9월 2일에는 약방제조를 윤번으로 직속케한 것으로 보아 질병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9월 13일에 임금이 평소 앓던 풍증이 발작하여 심하게 되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큰 병을 앓아서 조금만 생각해도 혈압이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풍증은 간양상항으로 인한 제반 증상, 즉 急躁易怒, 스트레스성 고혈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肝風內動 즉 中風까지는 이르지않은 비교적 일과적인 증상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9월 20일에는 임금의 환후가 평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숙종22년에 疝氣<sup>42)</sup>증상이 보이는데 극심한 하복부의 자통으로 미루어 볼 때 신장결석, 방광결석, 급성감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통 정도에 거의 회복된 것과 다른 기록이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과성의 신장 또는 방광의 작은 결석에 의한 疝痛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23년(37세) 2월 3일에는 中腕穴에 뜸치료를 받았고, 三里, 絶骨穴에 여러날 뜸치료를 하였다고 하여 비위과 하지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24년(38세) 7월 3일에는 임금이 갑자기 여름철 학질을 앓았으나 침치료 후 3일 지나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여름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단순 학질의 증세로 가벼운 외감증상이라고 생각된다. 숙종 25년(39세)에는 심화증의 기록이 보인다. 단순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생각된다. 숙종 26년(40세) 5월 2일에는 밤에 갑자기 가슴 위에 숨이 막히는 증세가 있어 침을 놓으니 수일 지나 회복되었다고 하여 中氣의 上下疏通이 阻隔됨을 보이는데 이 또한 신경성 증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5월 6일에는

39) “왕대비(王大妃) 김씨(金氏)가 저승전(儲承殿)에서 홍서(薨逝)하였다.”(숙종 9년12월 5일)

40) 숙종 14년 7월 16일.

41)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疾病이 없는데도, 大行大王大妃께서 매양 다만 질병에 걸릴까 근심하며, 비록 정신이 흐린 가운데서도 날이 저물어가면 나를 일찍 돌아가라고 권하시던 玉音이 여전히 귀에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卿 등이 아뢰어 청하는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니 하는 수 없이 따른다.’ 하고는 이내 床頭에 엎드려 통곡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갔다.”(숙종 14년 9월 10일)

42)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산(疝): 病名. 素問·長刺節論. 산기(疝氣)·횡형(橫疝)·소장기(小腸氣)·적풍입복(賊風入腹)·방광기(膀胱氣)·분돈기(奔豚氣)·반장기(蟠腸氣)·방광소장기(膀胱小腸氣)·신계음종(腎系陰腫)이라고도 한다. 이 증상은 두가지로 나뉜다. ①體腔의 내용물이 밖으로 돌출되면서 통증이 수반되는 증상이나 혹은 腹部가 격렬하게 아프면서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증후를 가리킨다. ②生殖器·辜丸·陰囊部位의 病證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남녀의 外生殖器가 붓고 진물러서 고통이 흐르며 요도에서 濁物이 흘러나오고, 辜丸 혹은 陰囊이 붓고 疼痛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腹部 증상이 겹쳐지는 것 등을 말한다.

暑節의 감기를 앓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8월 14일에는 밤 2경에 未寧한 증후가 있었다고 하고, 10월 6일에는 밤에 격체가 있었는데 침, 뜸, 탕제로 며칠에 치료되었다고 하며, 25일에는 痰火로 인해 평소에도 현기증이 나고 안좋은데 의관이 묻지 않는다면 의관들을 파직하고 있다. 10월 26일에도 상이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痰火가 있고, 또 주림을 많이 참은 나머지 가슴이 막혀서 끌어당기는 듯한 아픈 증상이 있으니, 병의 뿌리가 알지 않다”고 하며, 27일에는 “내 병의 본말은 지난해 10월 入診했을 때에 상세히 알았다. 30년의 피로로 평소부터 앓던 痰火가 더욱 심해지고 여러 해 동안 굶주림을 참아서 膈滯가 잇따라 일어났으며, 힘들고 어지러운 事務가 지극하여 현기증이 갑자기 일어나면 눈을 감고 한참을 있어야 비로소 안정이 된다. 한 해 두 해를 지내면서 뿌리가 깊어져 고질이 되었으니, 어찌 구구한 약의 힘으로 효험을 바랄 수 있겠는가?”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脾胃虛損, 虛火, 痰飲, 胸膈痞悶, 痰量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11월 25일에는 설사를 며칠 하고 멎었다 하니 그동안의 증세로 미루어 보건대 脾虛泄瀉로 생각된다. 숙종 27년(41세)에는 2월 6일에는 기침이 있었고, 19일에는 三里穴에 뜸을 떴다는 기록이 있어 겨울철 기침과 하지부 질환이 잠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29년(43세) 8월 13일에도 疝症으로 가슴이 치받듯이 배가 아팠는데 뜸을 뜨고 안정되었다<sup>43)</sup>고 하였다. 이 때의 산증은 숙종 본인 스스로 그 뿌리가 이미 몇 년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가슴이 치받듯이 배가 아팠다고 하였으므로 肅宗 22년 겨울에 나타난 疝氣 증세와 비교해서 그 부위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건대 이 때의 산증은 담석으로 인한 것 아니면 위장관 계통의 궤양이나

43) “임금이 갑자기 편치 않았는데, 가슴이 치받듯이 배가 아파서 급히 여러 의관을 부르니 대궐 안이 몹시 어수선하였다. 제조(提調) 이유(李濡)와 김우항(金宇杭)이 급히 입시(入侍)하고, 뜸을 뜬 지 한참 만에야 조금 안정이 되었다. ……의관이 대답하기를, ‘산증(疝症)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년 전부터 이 병이 이미 뿌리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을 느낄 뿐이더니 어느 새 이 지경이 되었다.’ 하였다.”(숙종 29년 8월 13일)

염증일 가능성이 있다.

숙종 31년(45세) 9월 24일에는 오른편 둔부 위에 결핵한 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숙종 32년(46세) 1월 25일에는 長強穴 아래 종기가 나서 침치료를 했는데 5, 6일 지나 조금 나았다고 하며, 2월 29일에는 종기가 자주 발생하여 椒井에서 목욕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못하였다고 하였다. 3월 27일에는 가슴에 痞塞의 증세가 있어 뜸을 뜨고, 이어서 상완, 기해 등의 혈에 뜸을 떴는데 일주일만 지나서 나았다고 하는데, 4월에도 4일과 11일에 뜸을 떴다고 되어 있다. 6월 말에도 배와 가슴의 중간에 비색한 증세가 있어 침과 뜸치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종기도 자주 발생하고, 中焦의 痞塞感도 자주 발생하는 등 正氣虛弱으로 인한 感染과 脾胃虛損의 문제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숙종 33년(47세)에는 4월에 왕자에게 紅疹이 발생하였으나 임금은 피하지 않았다고 하고, 7월에는 추위를 느끼고 떨리는 증세가 있었다 하며, 8월에는 발에 조그만 병이 있었다고 하였다.

숙종37년 7월 17일에는 왼 귀가 腫氣가 끓어서 鍼을 맞았고, 25일에는 耳瘡에 赤暈이 있고, 熏熱, 膿汁으로 鍼을 맞았다고 되어 있다. 몸의 여러곳에 종기가 다발하고 있음이 보인다. 9월에는 연잉군이, 11월에는 연령군이 마마를 앓아서 숙종은 중궁전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중궁전 의녀의 입진을 받기도 하였다. 11월 16일에는 두통, 오심, 경계, 변열에 속이 불편하여 화해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3일에는 학질 비슷한 기운을 보이고, 식욕부진과 현기증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중궁전도 마마를 앓았다가 치료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숙종 39년에 비위기능의 부조화로 인해 四肢無力 手足拘攣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넘어져 다친 발의 치료약으로 생우황<sup>44)</sup>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종기의 치료로 고약을 붙이고 정기의 회복을 위해 인삼, 粟米飲을 복용한 기록도 있다.

44)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pp. 296-297. 牛黃: 脊椎動物 哺乳類 偶蹄目 牛科에 속한 黃牛, 또는 水牛의 膽囊結石이다. 苦·甘, 涼 有小毒. 清熱解毒·熄風定驚·開竅豁痰.

숙중 40년(54세) 3월에는 浮氣가 있어 들오리<sup>45)</sup>를 잡아올리니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4월에는 飽滿症, 浮氣, 脹症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4월 27일에는 임금의 환후가 7개월이나 좋지 않는데 滑劑<sup>46)</sup>를 쓰면 神氣가 허약해지고, 또 緩劑를 써서 補하면 浮氣가 날로 더해지므로 御醫들이 어쩔줄을 몰랐다고 되어 있다. 당시 儒川君 李滯<sup>47)</sup>은 시급한 부기증세에 疏導之劑인 竹節草<sup>48)</sup>를 제시하였으나 어의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sup>49)</sup>. 4월 29일에는 전국에 명 의와 기이한 처방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여러 어의들이 치료방법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 숙중이 나타내는 부기 등의 다양한 증세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5월 초에 이르러 숙중은 導水丸<sup>50)</sup>을 복용하고 설사를 하고 포만증이 크게 줄었다 하였으며<sup>51)</sup>, 5월 말에 와서는 증세가

크게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도수환의 효과를 상당히 보았다. 6월 4일 기록에는 임금의 환후가 나아 여러 의관들에게 상을 내리고 있는데, 특히 7월 29일에는 ‘임금의 환후 치료에 공이 많은 유천군 이정과 의관들에게 자금을 올려주었다’고 하여 이정의 공이 상당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 8개월 동안 지속되어 나타났던 부기는 역시 비위의 병으로 인해서 정기가 허손되고 담음이 치성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간기능과 신기능의 부전에 소화기 장애를 겸하여 생긴 부종이라고 생각된다. 다수의 어의들이 합의하여 임금의 치료를 맡게 되므로, 어의 개인의 뛰어난 치료기술에 여러 가지 간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왕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위험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완만하게 치료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숙중 43년(57세)에 眼疾이 심하여 소장을 보기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더욱 심해져서, 숙중은 온천욕을 원하였으나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3월 3일에 드디어 온양온천으로 떠나 온천욕을 하였는데, 배꼽아래를 담갔다거나<sup>52)</sup> 다리 아래를 담갔다<sup>53)</sup>는 내용으로 보아 전신욕 뿐 아니라 반신욕 및 족욕, 각욕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온천욕은 별 효험을 보지 못하고 이후로 안질은 더욱 심해진다. 노화로 인한 백내장<sup>54)</sup>, 당

45) 中藥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4. p. 633. 白鴨肉: 爲鴨科動物家鴨的肉. 甘鹹, 平. 滋陰養胃, 利水消腫. 治癆熱骨蒸, 咳嗽, 水腫.

46)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p. 2708-2709. 滑劑: 十劑의 하나. 潤滑한 藥物로 조성해 留着을 없애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方劑를 말한다. “……張從正이 이르길 大便燥結하면 麻仁·郁李仁을 사용해야 하고, 小便澀閉하면 冬葵子·滑石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47)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66. p. 401. 李滯: 肅宗 39年 11월에 上候 諸症이 減함이 없으므로 都提調 李頤命의 請으로 進찰에 入參 議藥계 하였다. 肅宗 40年 4月 부터 7월에 걸쳐 수차 입진하여 資를 陞하고 賞을 賜하였다.

48)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112. 竹節草: 本草名. ①江蘇省植物藥材志. 편축(篇蓄)의 異名. ②山東中藥. 구맥(瞿麥)의 異名.

49) “죽절초는 옛 처방(處方)에 실려 있지 않고 성미(性味)가 심히 준급(峻急)한데, 어떻게 군부(君父)의 병환에 합부로 쓸 수 있겠는가.”(숙중 40년 4월 27일)

50)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4冊. p. 820. 導水丸: 【方源】 經驗秘方 引范提學方 (見 醫方類聚 卷一五七) 【組成】 大黃(去皮, 煨) 黃芩 二兩(去皮) 滑石 黑牽牛(頭末) 四兩 木香 檳榔 郁李仁(去皮) 白芥子 半兩 【主治】 水病虛腫 그 외 다른 구성의 처방이 있으나 대개 대황, 목통, 견우자 등의 通水, 利水, 瀉下의 의미를 가진 약제를 포함하고 있다.

51) “임금이 도수환(導水丸)을 복용하고 설사(泄瀉)를 하니, 포만증(飽滿症)이 약간 줄어들었다.”(숙중 40년 5월 4일); “임금의 환후가 근래에 와서 침수(寢睡)가 가장 나아지고 여러 가지 증후(症候)도 모두 차도가 있어 부기(浮氣)가 날

마다 점차 사라지니, 도수환(導水丸)의 효험 때문이었다.”(숙중 40년 5월 20일)

52) “사시(巳時)에 임금이 온정(溫井)에 나아가 두부(頭部)를 5백 바가지 감고, 배꼽 아래를 2각(二刻)동안 담갔다.”(숙중 43년 3월 19일)

53) “미시(未時)에 임금이 온정(溫井)에 나아가 두부(頭部)를 2백 바가지 감고, 다리 아래를 1각(一刻)동안 담갔다.”(숙중 43년 3월 22일)

54) 蔡炳允. 增補版 東醫眼耳鼻咽喉科. 서울, 集文堂. 1997. p. 146. 內障은 肝病에 속하는 것으로 眼睛內에 있으면서 正常的인 눈과 같으나 昏暗하여 物體가 안개진 상태에서 보는 것 같고 瞳人內에 隱隱한 靑白色이 나타나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水晶體混濁으로 視力에 影響이 있는 것을 白內障이라 하며……

해리슨내과학편찬위원회 역. HARRISON'S 내과학. 서울. 정담. 1997. p. 105. 백내장은 당뇨병환자(제1과 제2형) 그리고 백내장의 강한 가족력이 있는 어떤 환자들에서는 이른 나이에 발생한다.

노병성 망막병증<sup>55)</sup>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뇨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비위기능의 이상, 수분대사기능의 난조, 스트레스, 잦은 피부병, 안질의 증세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7월 8월에는 꾸준히 침, 뜸치료를 상양, 신수, 대둔 등에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이는 9월에서 12월까지 끊임없이 보인다. 혈자리는 삼리, 소택, 상양, 연곡, 태충, 태계, 후계, 협계, 풍부, 찬죽, 천주, 난간, 거료, 신문, 동자료, 함곡, 행간, 내관, 임읍, 내정 등 머리, 얼굴, 팔, 다리 등에 계속해서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월 27일에는 중국에서 구해온 안질에 좋다는 공청을 눈에 시험해 보았으나 효험이 없어 못신하들이 실망하였다고 하였다. 계속되는 침치료는 주로 안질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평소 임금의 고질인 화증과 비위증 등도 고려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45년(59세) 1월에도 증세가 위중하다고 하였고, 2월에는 다리가 마비되고 눈이 어둡다고 하였으며, 근래들어 여러 증후가 위중한데, 조금만 거동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코에서 열나고 오줌에서 피가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다. 심장의 이상으로 인한 증세<sup>56)</sup>로 여겨지며, 비뇨기계통의 질환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7)</sup>. 여름까지는 약방에서 계속 입진

하고 있어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7월 28일에는 환후가 갑자기 도져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밤에 꿈을 꾸면 물건이 나타나 놀라서 깨는데 安神丸<sup>58)</sup>을 조제하여 진정시켰다고 하였다. 8월에는 큰소리에 놀라 잠들었다 깨고 하는 등 원기가 허약하다고 하고 환후가 심해졌다고 되어 있다. 정기가 쇠약해진 데다 心氣와 神氣가 불안정하여 꿈을 꾸면서 놀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에는 肅宗의 셋째 아들 延齡君이 추하였으며, 11월에는 임금의 병환이 더욱 깊어져 고질이 되어, 국가 중대한 일을 동궁에게 위임하고 있다. 허약, 피로, 호흡이 고르지 못한 증세가 더해지면서 11월 23일에는 일체 정사를 동궁에게 맡길 정도로 환후가 심해졌다고 하였다. 당시 숙종에게 나타난 고질적인 脾胃虛損에 心膽虛怯의 증세까지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보건대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의 심장 이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46년(60세)에는 3월 말 경에 날마다 뜸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4월에 병이 심해지면서 복부 팽창이 심하다고 하였다. 5월 7일에는 복부가 날로 팽창하여 배꼽이 불룩해 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미음이나 죽을 조금 밖에 먹지 못하고, 호흡이 고르지 못하며 때로 정신이 혼수에 빠진다고 하고 있다. 복부 팽창은 배꼽까지 불룩해 지는 것으로 보아 복수가 차오르는 증세라고 생각이 된다. 이미 肅宗 40년에도 부기와 창증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복부에 전반적인 창만을 보이고 있기에 그 증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신증후군이나 만성 신부전, 간질환 등으로 인한 복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5월 13일에는 中脘<sup>59)</sup>, 17일부터는 三里에 뜸치료를 하였다. 5월 22일에는 임금의 말소리가 빨라서

55) 해리슨내과학편찬위원회 역. HARRISON'S 내과학. 서울. 정담. 1997. p. 2161.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실명의 원인이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빈도는 발생 연령뿐만 아니라 유병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85% 정도 환자에서 실제로 합병증이 발생하나, 몇몇 환자에서는 발병 30년 후에도 망막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56) 해리슨내과학편찬위원회 역. HARRISON'S 내과학. 서울. 정담. 1997. p. 60, 1159. 흉강내 장기의 동통의 방사는 알려진 신경해부학에 의하여 이해될 수가 있다. 대부분 관상동맥의 질환에 의하고, 간혹 다른 원인에 의한 심근허혈성 흉부불쾌감은 협심증이다. 협심증은 전형적으로 육체적 활동(운동, 서두름, 혹은 성관계)이나 감정(스트레스, 분노, 공포, 좌절)에 의해 나타나며 휴식으로 회복되고, 또한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불안정성 협심증) 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흉통이 유발되는 수도 있다(angina decubitus). 이 때 환자는 대개 전형적인 흉부 불쾌감이나 호흡곤란으로 잠을 깨게 된다.

57) HARRISON'S 내과학(해리슨내과학편찬위원회 역. 서울. 정담. 1997) p. 259에 보면 혈뇨의 원인을 신장, 요로, 방광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감별진단 및 검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8)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15. 安神丸: 治癲癩, 驚狂, 痰火諸證, 能鎮心安神. 人參, 白茯苓, 酸棗仁炒, 當歸, 生地黃酒炒, 黃連酒炒, 陳皮去白, 南星薑製各一兩, 朱砂[水飛爲衣], 天竺黃各五錢, 雄黃, 琥珀, 眞珠, 牛黃各二錢. 右爲末, 蜜丸梧子大, 朱砂爲衣, 米飲下五十九. 忌動風, 辛熱之物.<回春>

59) “임금이 중완혈(中脘穴)에 뜸 열네 방을 뒀는데, 원기(元氣)가 허약하고 지쳐서 죽을 다 사르지 않고 단지 쑥기운만 들여보냈다.”(숙종 46년 5월 13일)

알아듣기 힘들었다는데, 24일에는 임금의 정신이 혼미하고 복부가 가득 부풀어 오르고 혀가 마르고 말을 더듬어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6월 1일에는 더 심해져서 임금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고, 3일에는 부어오르는 증세와 구역이 심했고 묻는 말에 답하지 못하였고 거의 먹지 못했다. 4일에는 더욱 심해졌고, 5일에는 혼수상태가 더하였다. 6일에는 咳逆<sup>60)</sup>, 肩息<sup>61)</sup>이 그치지 않았고, 7일에도 억지로 약을 권하였으나 답하지 못하고 咳逆, 肩息을 동반한 혼수상태를 보였다. 이 때 삼차를 순가락으로 흘려 넣으니 咳逆, 肩息, 痰響이 심하였는데 간간이 蓼茶와 竹瀝을 입에 넣었다. 이 때 세자가 아닌 연잉군이 御手를 붙잡고 있었다는 점<sup>62)</sup>이 특기할 만하다. 6월 8일에는 약물을 토하고, 담끓는 소리가 크게 났으며 氣息과 痰響이 가늘어지다 크게 토한 뒤에 승하였다<sup>63)</sup>.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생각되지만, 죽음의 원인은 肝腎증후군<sup>64)</sup>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숙종의 질병은 자주 보였던 심화, 중기, 부기, 감기 외에도 안질, 산기, 이창, 학질, 심하비색, 비위허손, 식욕부진, 팔다리 통증, 무릎질환, 설사, 황달, 두질, 풍증, 두통, 구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위허손과 심하비색, 팔다리무릎 통증, 복부팽창 등에 주로 뜸치료를 하였고, 중기, 학질, 가슴에 숨막히는 증

세 등에는 침치료를 주로 시행하였다. 심화, 번뇌에 안신환, 복부부종에 활제, 완제, 도수환 등을 사용하였고, 부기에 들오리, 죽절초가 언급되어 있으며, 온천욕 후 한기에 다리가 저리고 가슴이 막히고 어지러운 증세에 紫金丹<sup>65)</sup>을 진여하기도 하였고, 안질에 공청을 구해와서 사용한 기록도 있다. 53세에는 넘어져 다친 발에 침뜸치료와 더불어 생우황을 치료약으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안질 등의 치료를 위해 온천욕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효험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질병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나타나고 있다.

#### 4. 景宗의 疾病과 治療

景宗(1688 肅宗 14년-1724 景宗 4년)은 조선 제20대 임금으로 諱는 昀이며, 字는 輝瑞이고, 肅宗과 禧嬪 張氏 사이의 長子로 肅宗 14년(1688)에 태어났다. 단의왕후 심씨와, 선의왕후 어씨 두 부인에게서 자식을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肅宗 46년에 肅宗이 승하하고 33세로 즉위하여 37세로 승하하기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집권하였다.

경종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33세에 왕위에 올랐다. 후궁소생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정쟁의 희생물이 되었고, 14세 무렵에는 생모인 희빈 장씨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경종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후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sup>66)</sup>.

6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 513. 紫金丹: 治食勞氣勞遍身黃腫慾變成水 膽礬三兩 黃蠟二兩 大棗五十枚 右以銀石器內入好醋三升先下礬棗慢火熬半日取出棗去皮核次下蠟熬一二時如膏入蠟茶末二兩和丸梧子大 每服二三十丸茶酒任下 礬以瀉肝 棗以補脾極妙<本事>

66) 숙종 16년 8월 17일 기록을 보면 “연의 집에서 성약(成藥) 세 알을 바치며 ‘두창(痘瘡)을 고치는 데에 좋으므로 세자(世子)를 위하여 봉진(封進)한다.’ 하였는데, 궁중에서 짐승에게 시험하였더니 곧 죽었다 하니, 어찌 크게 놀랄 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여 시중의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世子의 신상이 아직 불안하다는 정세를 짐작하게 해준

60)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2569. 咳逆: 病證名. 素問·六元正紀大論. 咳嗽에서 氣가 上逆하는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61)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117. 肩息: 숨을 쉴 때 어깨를 들쭉거리는 것을 가리킨다.……이 증상은 대부분 호흡곤란이 엄중한 환자나 哮喘病이 극심한 경우에 볼 수 있다.

62) “세자는 어상(御床)의 서쪽에 앉고 연잉군은 어수(御手)를 붙잡고 있었으며, 여러 신하들은 피시고 빙 둘러서서 조용히 기다리며 간간이 죽력(竹瀝)·삼차(蓼茶) 등속을 입에 흘려넣었다.”(숙종 46년 6월 7일)

63) “임금이 기식(氣息)과 담향(痰響)이 점차 가늘어지다가 갑자기 크게 토한 뒤 드디어 승하(昇遐)하였다.”(숙종 46년 6월 8일)

64) 해리슨내과학편찬위원회 역. HARRISON'S 내과학. 서울. 정담. 1997. p. 1607. 간신증후군은 간경변과 복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임상적 특징으로 신부전을 확인할 만한 특수 원인이 없이 노독증이 악화되고 소디움축적과 핏노가 온다.……치료는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元子였던 숙종 15년(2세)에 驚搐의 증세가 있었다 하고, 숙종 25년(12세) 1월에 ‘왕세자가 痘瘡에서 회복되어 예조에서 고묘, 진하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이때 두창을 앓았다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후 숙종 37년 연잉군, 연령군이 차례로 마마를 앓았을 때 경종은 괜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35년(22세)에 학질 증세를 보였고, 숙종 46년(33세) 2월 말에는 紅疹 증세를 보였으나 3월 초에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즉위한 다음 해인 경종 1년(34세) 4월 20일 기록에 ‘이 때 임금에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5월 12일에는 삼리, 절골에 鍼을 맞았고, 8월 9일에는 각질로 삼리에 땀을 뺐다고 하였다. 10월 10일 임금이 내린 비망기에 보면 이상한 병이 있는지 오래 되었고, 청정하는 동안 몸을 돌보지 못하였으며, 즉위한 이래로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 하였다<sup>67)</sup>는 내용이 있다. 경종 4년 기록<sup>68)</sup>에 동궁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서 병이 생겼다는 것을 참고하면, 경종의 오래된 병은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심화로 인한 증세라고 생각된다. 이 때(1721년) 노론이 아직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경종을 압박하고 연잉군을 세제에 책봉시키도록 하였으며, 경종의 와병을 핑계로 대리청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0월에는 ‘심화가 붙어나 화열이 오르내려서 정신이 아득하고 권태가 있어 치료하기 힘든 지경이니 조섭을 위해서 세제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킨다’고 경종은 말하고 있다. 나중에 소론 측의 간언으로

다.

- 67)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곧 선조(先朝)의 진념(軫念)하시는 바였고, 만기(萬機)를 수응(酬應)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지난 정유년에 청정(聽政)의 명이 있었던 것은 조용히 조섭(調攝)하시는 중에 그 조섭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르러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등극(登極)하고 나서부터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침고(沈痼)해지고, 수응(酬應)이 또한 어려워 정사가 정체(停滯)됨이 많다.”(경종 1년 10월 10일)
- 68)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서 드디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 고열이 되어 화열(火熱)이 위로 오르면 때때로 혼미(昏迷)하기도 했다.”(경수 4년 8월 2일)

명을 회수하기는 하나 이후 경종은 몇 번 대리청정을 명하였다 거둬들이기를 반복하였다.

경종 2년(35세) 3월 17일에는 都承旨의 公事를 읽고 나서 火熱이 오르고 心氣가 폭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公事의 내용은 사신의 論<sup>69)</sup>과 당시 정치상황으로 보아 세제 대리청정을 강요했던 노론 대신 김창집의 죄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8월 18일에는 마침 내인(內人)이 임금의 음식에 독을 썼으나 곧 토해서 괜찮았다는 기록<sup>70)</sup>이 있다. 이에 따르면 즉위년인 庚子年 10월에도 경종이 갑자기 크게 痰水を 반 대야나 토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독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신하들은 의심하고 있다<sup>71)</sup>. 지난해부터 있었던 辛丑換局과 올해 목호룡의 고변에 따른 壬寅獄事로 정권이 교체되어 소론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종의 왕권이 튼튼해질 수가 있었다. 당시 임인옥사에 연잉군은 역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노론과 연잉군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종 3년(36세) 3월에는 의원이 이를 간격으로 입진하도록 하였다 하니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 다른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다. 7월 8일에는 임금에게 痰火가 있었다고 하며, 腫氣를 앓은 사람이 꺼릴 것은 怒氣라고 提調가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때 腫氣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9월 17일에는 聖候가 未寧하여 승지가 급작스럽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도록 청하고 있어 경종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肝氣鬱結의 증세로 怒氣가 자주 逆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종 4년(37세)에는 8월 2일에 임금의 병이 더욱

- 69) “사신은 논한다. ‘김창집(金昌集)이 임금의 병을 가탁(假託)하고 공의(公議)를 빙자하여 사계(私計)를 이루려 한 것은 그 죄가 진실로 매우 컸는데, ‘……’”(경종 2년 3월 17일)
- 70) “성궁(聖躬)에 독약(毒藥)을 시험하였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 ‘그날 수라를 진어(進御)하신 뒤에 즉시 구토(嘔吐)하시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경종 2년 8월 18일)
- 71) “듣건대 ‘경자년 10월 사이에 성상께서 갑자기 크게 담수(痰水)를 토하시었는데, 거의 반 대야에 이르렀으며, 색깔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달에 입직(入直)한 의관(醫官)의 일기(日記)에는 반드시 상고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경종 2년 8월 18일)

위급해지고 한열이 있어 柴陳湯<sup>72)</sup>을 올렸다고 한다. 이 즈음 동궁 때부터 쌓인 걱정과 두려움이 고질이 되어 火熱이熾盛하면 혼미하기도 하였다고 하고 牛黃六一散<sup>73)</sup>·滾痰丸<sup>74)</sup> 등을 진어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공윤<sup>75)</sup>이 景宗 2년에 천거되어 桃仁承氣湯<sup>76)</sup>을 진어하도록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작년부터는 柴平湯<sup>77)</sup>에 大黃, 枳實등을 가한 약제를 올 봄까지 백 수십 첩을 진어하여 오히려 입금의 체후가 밝은 관잖아 보였으나 안으로 비위가 허해져 입맛이 떨어지고 한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이공윤의 잘못을 史官이 지적하고 있다. 8월 3일에는 한열이 심하여 升陽散火湯<sup>78)</sup>을 올렸다고 하고, 8월 8일에는 柴胡白虎湯<sup>79)</sup>을 올렸으며, 8월 11일에는 밥 먹기를 심히 싫어하여 우선 복약을 정지하

었다고 한다. 16일에는 寢膳이 날로 줄어들고 소변이 점점 단축되므로 柴芩湯<sup>80)</sup>을 올렸고 19일에는 육근자탕을 올렸다. 8월 20일에 계장과 생감을 들고 나서 밤에 입금이 가슴과 배가 조이듯이 아파하였고, 21일에는 두시탕과 곽향정기산을 진어하였으나<sup>81)</sup>, 22일에도 복통과 설사가 더욱 심하여 黃芩湯<sup>82)</sup>을 올렸고, 23일에는 설사로 혼미하고 피로하여 탕약을 정지하고 人蔘粟米飮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24일에는 더욱 맥이 낮아지고 음성이 미약해졌는데, 蔘茶, 미음을 올렸다. 낮에 이공윤이 蔘茶를 쓰면 안되고 桂枝麻黃湯<sup>83)</sup>을 쓰면 설사를 그치게 할 수 있다 하여 다려서 올렸으나 저녁 때가 되어 더욱 위급하다고 하였고<sup>84)</sup>, 王世弟(英祖)가 인삼, 부자를 쓰도록 하니 이광좌가 蔘茶를 다시 올렸다. 이 때 이공윤이 蔘茶를 많이 쓰면 위험하다고 하였지만 왕세제가 인삼, 부자의 回陽 효과를 거론하며 삼차를 계속 올리도록 강요하였다<sup>85)</sup>. 환후가 잠깐 안정이 되었고 삼차를 계속

72) 彭懷仁의 中醫方劑大辭典, 8冊, p. 300. 柴陳湯: 【方源】醫學入門【組成】小柴胡湯 合 二陳湯【主治】痰氣胸膈不利及痰癆; 柴陳湯 【方源】濟陽綱目【組成】柴胡 黃芩 人蔘 半夏 陳皮 茯苓 草果 甘草【主治】癰疾 外感內傷 鬱聚成痰 熱多 頭痛肉跳 吐食嘔沫 甚則昏迷卒倒

73) 辛民教 編者,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p. 354. 실록에 下利시키는 약제라고 되어 있어 六一散의 변방으로 생각된다. 육일산은 滑石과 甘草를 6:1로 배합한 것이고, 활석은 暑濕에 쓰는 通利水道의 요약이다.

74) 彭懷仁의 中醫方劑大辭典, 10冊, p. 1032. 滾痰丸: 【方源】玉機微義【組成】大黃 黃芩各八兩 沈香半兩 青礞石(消煨)一兩【主治】痰證, 耳鳴, 心氣疼痛.

75) 肅宗 39년 12월 25일 도제조 이이명이 의술이 뛰어난 자를 불러 들일 것을 건의 하였을 때 언급된 바 있다.

76)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103. 桃仁承氣湯: 治血結膀胱, 小腹結急, 便黑, 譫語, 瀉水, 宜此攻之. 大黃三錢, 桂心, 芒硝各二錢, 甘草一錢, 桃仁留尖十枚, 右剉, 作一貼, 水煎, 入芒硝, 溫服, 以瘀血盡下爲度.<丹心>

77)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495. 柴平湯: ①治諸癆, 柴胡, 蒼朮各二錢, 厚朴, 陳皮, 半夏, 黃芩各一錢, 人蔘, 甘草各五分, 右剉, 入薑三, 棗二, 梅一, 煎服. ②一名平胡飮子.<入門>

78)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184. 升陽散火湯: ①治火鬱, 及五心煩熱, 升麻, 乾葛, 羌活, 獨活, 白芍藥, 人蔘各一錢, 柴胡, 甘草各六分, 防風五分, 甘草生四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東垣> ②一名柴胡升麻湯.<東垣>

79)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1291. 柴胡白虎湯: 重訂通俗傷寒論 方. 柴胡 3g, 石膏 24g, 天花粉·粳米 各 9g, 黃芩 4.5g, 知母 12g, 甘草 2.4g 鮮荷葉 1片, 水煎服. 寒熱往來한데 寒이 가볍고 熱이 심하며 心煩하고 嘔이 흐르며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 하고, 脈이 弦數하면서 有力한 경우를 치료한다.

80)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104. 柴芩湯: 治傷寒熱病, 發熱泄瀉, 柴胡一錢六分, 澤瀉一錢三分, 白朮, 豬苓, 赤茯苓各七分半, 半夏七分, 黃芩, 人蔘, 甘草各六分, 桂心三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水煎溫服.<丹心>

81) “약방에서 입진(入診)하고 여러 의원들이 입금에게 어제 계장[蟹醬]을 진어하고 이어서 생감[生柿]을 진어한 것은 의가(醫家)에서 매우 꺼려하는 것이라 하여, 두시탕(豆豉湯) 및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진어하도록 정하였다.”(경종 4년 8월 21일)

82)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2714. 黃芩湯: 傷寒論方. 黃芩 9g, 芍藥·炙甘草 各 6g, 大棗 1.2개, 물에 달여 3회에 나누어 복용한다. 淸熱治利·和中止痛한다. 太陽과 少陽의 合病으로 腹痛下利가 발생하거나 혹은 痢疾腹痛이 발생하면서 熱이 나고 舌質이 붉으며 脈이 洪數한 경우를 치료한다.

83)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054. 桂麻各半湯: 治太陽病, 脈微, 身痒, 麻黃一錢半, 桂枝, 芍藥, 杏仁各一錢, 甘草七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入門>

84) “이공윤(李公胤)이 공언(公言)하기를, ‘삼다(蔘茶)를 써서는 안된다. 계지마황탕(桂枝麻黃湯) 2첩만 진어할 것 같으면 설사는 금방 그치게 할 수 있다.’ 하므로, 마침내 다려 올려 복용하였다. 유각(酉刻)에 의관(醫官)이 입진(入診)하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환후(患候)의 증세가 아침에 비교해 더욱 위급합니다.’ 하자……”(경종 4년 8월 24일)

85) “이공윤(李公胤)이 이광좌에게 이르기를, ‘삼다를 많이 쓰지 말라. 내가 처방한 약을 진어하고 다시 삼다를 올리게 되면 기(氣)를 능히 움직여 돌리지 못할 것이다.’ 하니, 세제

순가락으로 떠서 넣었다. 8월 25일 경종은 環翠亭에서 昇遐하였다.

경종의 질병과 치료 및 죽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선 희빈이 사약을 받기 전 임금에게 부탁하여 마지막으로 세자를 대면하던 때 세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쥐어 성불능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평생 질병에 시달렸다는 소문<sup>86)</sup>이 있다. 두명의 부인에게서 후사가 없었고 희빈 장씨의 죽음 뒤로는 자주 건강이 불편하였기에 그럴 듯하게 퍼졌다. 다음으로 노론과 연잉군이 독살했다는 설은 당시에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켜 특히 남인과 소론 등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 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임인옥사의 일로 이미 궁지에 몰린 연잉군과 소론에 정권을 빼앗기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노론의 입장과, 여기에 더해 경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왕세제인 연잉군이 취할 수 있었던 권력을 고려할 때, 특별히 의학에 문외한인 연잉군이 인삼, 부자를 언급하면서 무리하게 경종의 치료에 간섭하는 장면은 그러한 의심을 사게 만드는 면이 있다. 더구나 독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계장과 생감<sup>87)</sup>도 대비전에서 보냈었지만 실제로는 연잉군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경종은 심리적 압박에 의한 痰火, 腫氣, 心火, 急躁

(世弟)가 말하기를, ‘사람이란 본시 자기의 의견(意見)을 세울 곳이 있긴 하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꼭 자기의 의견을 세우려고 인삼 약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였다. 조금 지나자 임금의 안시(眼視)가 다소 안정되고 콧등이 다시 따뜻하여졌다. 세제가 또 말하기를, ‘내가 의학(醫藥)의 이치를 알지 못하나, 그래도 인삼과 부자가 양기(陽氣)를 능히 회복[回陽]시키는 것만은 안다.’ 하였다.”(경종 4년 8월 24일)

86) 이덕일. 조선 왕 독살사건. 서울. 다산초당. 2005. p. 216.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4. 서울. 한길사. 2001. p. 24.

8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16. 실록에서는 계장과 생감을 같이 먹는 것을 의가에서 매우 꺼린다고 기록하고 있다. 本草綱目的 相反諸藥 凡三十六種에 보면 ‘柿反蟹’라 하여 감과 게를 상반약물로 보고 있다.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pp. 119-122. 相反이란 配合禁忌의 하나로서 두 가지 약물을 배합했을 때 相互作用으로 毒性反應이나 혹은 劇烈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고대 문헌 중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金元時代에 총괄한 十八反이 영향력이 가장 크다. 또한 十八反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의가들이 배합한 예가 있다. 그런데 감과 게는 十八反에 들어 있지 않다.

易怒의 증상 등을 고질로 가지고 있었다. 정기가 심히 손상된 뒤였고 한열이 왕래하고 담화가 오르내리며 소변이 단축되고, 복통·설사가 주 증세였던 것으로 보면 위장관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비록 독살설의 정확이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경종의 질병은 앞서 검토해 보았듯이 생모인 희빈 장씨의 비참한 죽음을 어린 나이에 겪은 것에 더해 끊임없는 노론의 정치적인 공세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88)</sup>. 소문은 노론 쪽에서 경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정치공작<sup>89)</sup>이라고 생각된다.

경종은 비록 재위기간은 짧았으나 어려서부터 경축, 두창을 앓았고 이후 학질, 홍진 등을 앓았고 즉위 후에도 계속하여 두려움, 심화, 화열, 심기폭발, 풍기, 담화, 한열, 비위허손, 식욕부진, 각질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질로 삼리에 땀을 뜬 기록이 있고, 풍기에 대한 치료기록은 보이지 않고 다만 노기를 경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선 임금들의 치료기록을 볼 때 침치료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처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열의 치료에 우황옥일산, 곤담환, 도인승기탕, 시평탕에 대황 지실, 한열치료에 승양산 화탕, 시호백호탕, 寢膳이 날로 줄어들고 소변이 점점 단축되는 데에 시령탕, 육군자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계장과 생감 진어후 가슴과 배 부위의 조이는 통증에 두시탕, 곽향정기산, 복통, 설사에 황금탕, 설사로 혼미하고 피로한 데에 인삼속미음, 설사에 계지마황탕, 회양을 위하여 삼차를 진어한 기록이 보인다. 주로 심화로 인한 화열과 감염에 의한 한열을 치료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清熱峻下藥物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의관으로 천거된 이공운의 성향이 준리를 주로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英祖의 疾病과 治療

88) 이덕일. 조선 왕 독살사건. 서울. 다산초당. 2005. p. 216.

89) 이이화의 한국사이야기13-당쟁과 정변의 소용돌이, 이덕일의 조선 왕 독살사건을 보면 왕세제 책봉으로 청에 사신으로 간 이견명이 청의 대신들이 경종의 병에 대해 묻자 ‘瘵’라고 대답하여 경종을 음해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英祖(1694 肅宗 21년-1776 英祖 52년)는 조선조 제21대 임금으로 諱는 吟이며, 字는 光叔이고, 숙종과 和敬淑嬪 崔氏 사이의 아들이며 숙종의 둘째 아들이자 경종의 배다른 동생이다. 숙종 21년에 태어났으며 달성부원군 서증계의 딸인 정성왕후 서씨를 비롯하여 총 6명의 부인에게서 2남 7녀의 자식을 얻었다. 景宗 4년에 景宗이 승하하고 난 후 31세로 즉위하여 83세로 사망하였다.

영조는 왕자로 있을 때(숙종 37년, 17세)에 마마에 앓았다는 기록이 있다. 경종 1년(28세) 8월에 왕세제 임명을 받았는데, 12월에 환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재위 초기에는 주로 감기, 안질, 화기, 상기, 현훈 등의 증세로 침구치료를 받은 기록이 보인다. 영조 6년(37세) 3월에는 지극한 애통으로 가슴이 후끈거리고 화기가 올라 해수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6월에는 生脈散을 진여하였다. 영조 7년(38세) 3월에는 임금이 현기증이 있어 醒心散을 올렸다. 영조 9년(40세)에는 풍한의 외감으로 인한 疝氣가 있었는데 癰積으로 증세를 잡고 땀을 뺐다고 되어 있다.

영조 13년(44세)에는 2월에 臂痛을 앓았다 하고 3월에는 침치료를 받았는데 內關과 曲池를 취혈하였던 기록이 있다. 4월 3일에는 건부가 마비되는 증세가 있었고, 18일에는 왼 팔의 痰核이 통증을 일으켰다고 하고 23일에는 또 침을 맞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침치료를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뜸치료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5월에도 팔이 아파서 침을 맞았는데, 부제조가 고양이 가죽을 약으로 권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6월 4일에는 뜸치료를 받았고 7월에도 아직 현기증이 있고 팔이 아팠다고 되어 있다. 8월 11일에는 상이 “인삼과 창출을 먹어도 속이 편치 못하여 수라를 들 수가 없다”고 하여 속이 많이 불편함을 말하고 있다. 11월에 임금이 비답한 내용을 살펴 보면 임금은 그다지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 18년(49세)에는 2월 24일에 藥院에 問候나 入診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28일에는 피로와 심기허약을 이유로 입진을 허락하였다. 3월 14일에는

임금의 현기증은 세상을 개탄스럽게 여기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며, 9월 15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백성의 피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월 15일에는 현기증으로 고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영조 19년(50세) 1월에는 痰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2월에도 痰症으로 근육이 아팠다고 하였다. 이때의 痰症은 근육의 문제로서 담이 결린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영조 20년(51세)에는 2월 29일에 현기증으로 탕제를 올렸다고 하고, 5월 1일에는 氣와 가래, 疝氣로 땀을 뺐는데 5월 10일이 되어 거의 나아서 약원의 숙직을 파하였다고 하였다. 영조 22년(53세)에는 6월에 안질로 침치료를 하였는데 21일에 병후가 평복되었다고 고묘·진하의 예를 예조에서 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영조 23년(54세)에는 5월 19일에 임금이 여러날 근로하여 옥후가 불편하였다하여 6월 말까지 약방에서 입진하였다고 되어 있다. 9월 2일에는 침을 맞았으며 이후 12월까지 入診의 기록만 보인다. 영조 24년(55세) 1월에는 진상한 가족신 때문에 발을 다쳤다고 하는데 아마도 새신발에 발이 조금 불편한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 25년(56세) 1월 4일에는 제조가 영양 있고 맛있는 반찬을 드시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은 백성의 굶주림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지난 기록들을 보면 자주 素膳을 하곤 하였으며 減膳의 기록도 비교적 자주 보이는 편이다<sup>90)</sup>. 영조는 膏粱厚味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素膳도 자주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나중에 영조가 장수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조 26년(57세)에는 몇차례 약방에서 입진한 기록만 보인다. 영조 27년(58세)에는 1, 2월에 약방에서 입진한 기록이 보이고, 5월에는 몸이 편찮았다고 하였고, 8월에도 입진한 기록이 있는데, 10월 10일에는 마음이 激惱하여 탕제도 안듣고 심한 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영조 28년(59세), 영조 30년(61세)에는 약방의 입진기록이 조금 보이고, 영조 29년(60세)에는 별다른

90) 일반적으로 조선조 임금들은 상례에 임하여서는 素膳을, 천재지변이나 역병 등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減膳을 하여, 유교의 덕목을 잘 지키고 있다.

질병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영조 32년(63세)에는 9월 6일에 몸이 불편하였다고 하는데, 거의 9월 내내 약방에서 입진하고 있다. 21일에는 六君子湯을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영조 33년(64세)에는 2월 27일에 대왕대비전이 편찮았는데 이 때부터 임금이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았고 때로는 난간에 의지하여 옷을 입은 채 자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월 5일에는 蓼蒼이 든 약제를 복용할 것이라고 하고, 7월 27일에는 瓊玉膏를 올리기를 청하였다고 하였다. 영조가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추위를 탄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뒤에 인삼, 복령을 쓴 약제와 경옥고를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 34년(65세)에는 초기에 간혹 약방에서 입진하였는데, 12월 11일에 임금이 환후가 있다고 하는데 12일에는 理中湯을, 13일에는 五積散을, 14일, 15일에는 人蔘養胃湯을 올렸다고 되어 있고, 16일부터 19일까지는 다시 매일 理中湯을 올렸으며, 21일과 22일에는 理中建功湯을 올렸다고 하였다. 12월 23일에는 기침이 있어 橘薑茶를 올렸고, 24, 25일에는 다시 理中建功湯을 26일부터 28일까지는 正氣天香湯을, 29일과 30일에는 理中建功湯을 올리는 등 거의 20일 정도 투약기록을 볼 수 있다. 다음 해 초반에 별다른 기록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의 회복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처방으로 미루어 볼 때 주로 寒證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보이며, 傷寒陰證, 外感風寒, 內傷生冷 등 脾胃虛寒에 약간의 外感風寒을 겸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영조 35년(66세)에는 8월 4일과 5일에 오적산을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질병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쓰이는 것처럼 복용하였다기 보다는 지난 해에 이어 비위허한의 증세를 보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 37년(68세) 3월 24일에는 날씨가 안좋아 痰이 일어나서 3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하였는데도 체조가 그 중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파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理中建功湯을 매일 진어하도록 하였고, 人蔘粟米飲을 올리도록 하였다<sup>91)</sup>. 3월 26일에는 임금이

91)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날마다 두 번씩 달여서 들이

鷄膏<sup>92)</sup>를 들이도록 하였고, 27일에는 枳<sup>93)</sup>를 복부에 붙이도록 하였으며, 28일에는 導氣湯<sup>94)</sup>을 올리도록 하였는데<sup>95)</sup>, 4월 7일 기록에는 환후가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당시 영조는 脾胃의 虛寒 증세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痰飲의 증세도 아울러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6월 19일에 복부에 왕래하는 기운이 있어 탕제를 들이도록 하였는데, 이후 7월 말까지 탕제를 계속 올린 것을 볼 수 있다. 처방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나왔던 理中建功湯, 導氣湯, 五積散, 人蔘養胃湯 등의 종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8월, 9월에도 약방에서 입진을 계속하였고, 10월 10일에는 임금이 복부에서 치밀어 오르는 증세가 있어 枳積疝氣散을 올리라 명하였다고 하는데, 12일에는 임금의 증세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여 정신적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복부에 왕래하는 기운이나 치밀어 오르는 증세는 스트레시성 위장질환이라고 추측된다. 이후 연말까지 꾸준히 약방에서 입진하고 있으며, 12월 14일에는 복부에 응체된 증후가 있어 탕제를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39년(70세)에는 11월 말에 잠깐 환후가 있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영조 40년(71세) 3월에는 땀을 뺐다고 하였으며, 4월 24일에는 痰凝症이 있어 의원들이 고양이 가죽을 良藥이라고 권하였으나 고양이가 멸종될 것을 우려하여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sup>96)</sup>을 볼 수 있다. 이때 영조가 말하기를,

도록 명하고 인삼(人蔘) 두 돈중[錢重]에 좁쌀을 넣어 마실 수 있도록 달여서 들이게 하였다.”(영조 37년 3월 24일)

92) 彭懷仁의 中醫方劑大辭典, 5冊, p. 1097. 鷄膏: 【方源】濟衆新編 卷二. 【組成】陳鷄一只(去筋膜皮骨及頸和脊, 只取肩脚及腹下堅肉) 生桔梗一條 生薑二兩 官桂五錢 山楂二十介 黃粟十介 【用法】制爲膏服. 【主治】素稟血燥, 肺經有火, 難服參料者.

93)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p. 525. 葱白: 百合科(나리과)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과의 鱗莖이다. 辛, 溫 無毒. 解表散寒·通陽.

94) 彭懷仁의 中醫方劑大辭典, 4冊, p. 819. 導氣湯: 【方源】醫方集解 【組成】川棟子四錢 木香三錢 茴香二錢 吳茱萸一錢(湯泡) 【主治】①醫方集解 寒疝疼痛 ②醫方簡義 偏墜, 小腸疝痛之證.

95) “의약청(議藥廳)에서는 단지 도기탕(導氣湯)만 그대로 지어서 들이도록 하라.”(영조 37년 3월 28일)

“전에 東平尉 鄭載崙이 도요새[桃腰鳥]를 나에게 보내 왔으나 나는 놓아 보냈다. 사슴 꼬리[鹿尾]<sup>97)</sup>나 메추리 고기[鵝肉]<sup>98)</sup>도 내가 전에 즐겼던 것들이나, 올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역시 민폐를 끼칠까 두려워해서이다.”<sup>99)</sup>라고 하여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요새나 사슴꼬리 등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약재들을 거론하고 있다. 5월과 12월에 임금이 탕제를 들지 않자 여러 신하들이 강력하게 탕제 들기를 청하고 있다<sup>100)</sup>. 영조는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자주 탕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복잡한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신들을 견제하고 정신적인 위안을 찾는 방법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대신들은 영조가 탕약을 거부할 때마다 밤을 새우며 뜰에서 사죄하고 다시 탕약 진어를 권하고 있는데, 영조는 마음에 들 때까지 시간을 끌다 나중에 겨우 받아들여서 복용을 하곤 하였다. 때로는 유생들이 모인 곳에 가거나<sup>101)</sup>, 도성에 나가 坊民<sup>102)</sup>들 앞에서 본인이 탕약을 복용해야 하겠는가 물어보는 때<sup>103)</sup>도 있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오래 살면서 생기는 여러 질병으로 탕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것도 질렸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하여 정신적 압박이 생기거나, 대신들과 문제가 생기면 이를 기화로 탕약진어를 거부했던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영조 41년(72세) 10월 10일에 생강차로 술을 대신하게 한 기록이 나타난다. 영조 대에는 자주 금주령<sup>104)</sup>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조 스스로도 술을 별로 즐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고량후미를 억제한 것과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던 것이 영조가 장수했던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11월 27일에는 痰으로 당기는 증세가 있어 지팡이를 구하게 하기도 하였다. 12월 29일에는 임금의 얼굴이 건공탕<sup>105)</sup>의 효과로 화창하다는 제조의 말에, 영조 스스로 답하기를 ‘인삼의 精氣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06)</sup>. 이때 의원의 말에 지난 1년간 진어한 인삼이 거의 20여 근 정도 된다는 언급이 있다. 인삼을 하루에 약 8.8돈 소비한 것이 되며, 처방 구성으로는 한 첩에 4돈 넘게 넣은 셈이다. 이를 1년간 매일 복용한 셈이 되니,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지팡이를 구할 때에 담으로 인한 증세를 언급했었는데 이것은 내장 장기의 병리적 담 증세는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허리와 다리의 퇴행성 질환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조 42년(73세) 1월 8일에도 금주령으로 인해 약재의 수치를 하기 힘들다는 도제조의 말이 있었는데<sup>107)</sup>, 약재의 수치까지 어려울 정도로 금주령이 엄

96) “내가 담응증(痰癢症)이 있는데, 의원(醫員)은 고양이 가죽이 양약(良藥)이라고 말하나 내가 고양이 가죽을 쓰면 온 나라가 본받아서 장차 고양이 멸종될 것이다.”(영조 40년 4월 24일)

97) 中藥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4. p. 1927. 鹿尾: ①青海藥材 性溫, 無毒. 爲滋補藥. 治腰痛, 陽痿. ②四川中藥誌 味甘鹹. 暖腰膝, 益腎精, 治腰脊疼痛不能屈伸, 腎虛遺精及頭昏耳鳴.

98) 鵝肉: 甘, 平, 無毒. 膾炙食之, 益人氣力, 利臟腑.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2567.)

99) 영조 40년 4월 24일.

100) “임금이 탕제(湯劑)를 물리치고 들지 않았으며,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가 구대(求對)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영조 40년 5월 20일); “임금이 연일 탕제(湯劑)를 들지 않자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입진(入診)을 극력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영조 40년 12월 1일)

101) 영조 50년 5월 11일.

102)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1979. p. 303. 행정구역 단위인 방(坊)의 그 안에서 사는 백성.

103) 영조 50년 5월 8일.

104) 英祖 5년 8월 20일에 술이 비록 곡식을 허비하지만 백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술주정만 금지하자는 청이 있었고, 英祖 9년 1월 10일에도 주로 곡식이 품귀하게 되어 금주령을 내렸으며, 영조 40년 4월 24일 기록을 보면 심지어 태묘에 술을 올릴 때도 감주로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5) 영조는 건공탕을 제일 많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建中湯과 異功散 계열의 처방으로 생각된다.

106) “모두 말하기를, ‘옥색(玉色)이 화창하시어 실로 그전보다 못하시다는 탄식이 없고, 성수(聖壽)를 또 더하셔도 수염과 머리카락이 조금도 쇠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건공(建功)의 효과(效果)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얻은 것은 인삼(人蔘)의 정기(精氣)인데, 1년간 진어(進御)한 것이 몇 근(斤) 정도인가?’ 하니, 여러 의원(醫院)들이 말하기를, ‘거의 20여 근입니다.’ 하였다.”(영조 41년 12월 29일)

107) 英祖 42년 1월 20일(庚寅) 都提調 金致仁이 말하기를, “湯劑는 술로 씻고 볶는 재료가 많은데 禁食에 엄매여서 體酒로 볶고 씻으니, 약효가 미치지 못합니다. 청컨대 내국에서 술 두어 되[升]를 빚어서 씻고 볶는 자료로 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太廟에도 <술을> 쓰지

격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월 26일에도 “藥房都提調 金致仁이 ‘通順散<sup>108)</sup>은 바로 술과 물을 半씩 쓰는 藥劑인데 단술로 대용한 까닭으로써 그 효력이 신기하지 못하다.’고 하여, 영의정 洪鳳漢, 좌의정 金相福, 領府事 尹東度와 더불어 같은 소리로 술로 調製할 것을 힘써 청하니, 임금의 허락하였다”<sup>109)</sup>고 기록하였다. 2월 25일에는 정신이 혼모하다고 하였고, 3월 16일에는 객관 때문에 正氣散, 蘇合元, 蟠蔥散을 올렸다고 되어 있으며 3월 24일에는 상후가 평복하였다 하여 예조에서 告廟·頒赦·陳賀하기를 청하고 있다. 4월부터 8월 초까지는 약방에서 정기적으로 입진하였던 기록이 있고, 10월 11일에 임금이 인삼을 얼마나 먹었는가 궁금해 하니, 의관이 말하기를 입신년(1752, 59세)부터 백여근이 넘었다고 하였다. 12월 10일에는 正氣散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 43년(74세)에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약방의 입진이 많은 편이다. 3월 17일에는 蓼菴茶, 建功湯 등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여전히 가끔은 탕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6월 29일에는 임금이 더위와 설사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였다. 영조 44년(75세) 1월에는 용안이 좋아졌다고 하였고, 2월 30일에는 임금이 반찬가지수를 줄이라고 하여 신하들의 만류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근이나 흉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임금이 減膳을 하였는데 당시 災變의 기록은 보이지 않고, 봉당의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減膳이라고 생각된다. 3월 1일에도 ‘黨人은 강해지고 있기에 建功湯을 못먹겠다’고 하고, 5월 26일에도 “고금에 물어보라. 조선

에 임금이 있는지 신하가 있는지 말이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金若行이 있고 이틀을 지내고 나면 李謙彬이 있는데<sup>110)</sup>, 무슨 마음으로 탕약을 복용한단 말인가? 문안을 그만 청하도록 하라.”<sup>111)</sup>고 하며 탕약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을 자신의 탕약 복용에 건주어서 정치적인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데, 대개 당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7월 10일에는 친히 농사를 살피고 더위에 몸을 상하였다고 하는데 香橘茶, 茹菹湯을 들고 새벽에야 회복되었다. 7월 28일에는 임금이 좋아하는 반찬 네가지를 직접 이야기 하고 있는데 松茸<sup>112)</sup>·生鰻<sup>113)</sup>·兒雉<sup>114)</sup>·苦椒醬<sup>115)</sup>가 있으면 밥을 잘 먹는다고 하였다. 9월 2일 전교에는 “아! 나의 병은 첫째도 心氣이고, 둘째도 심기이다.”<sup>116)</sup>라고 하였고, 9월 13일에는 松節茶<sup>117)</sup>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11월에도 心氣를 거론하고 있어 이 시기 상당히 心氣가 불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조 45년(76세) 2월에 약방의 입진이 많았으며 탕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에 약방에서 두 번이나 입진하였는데, 임금이 서증으로 기운이 편

110) 당시 이들의 외람된 상소로 인해 영조의 심기가 많이 불편하였다.

111) 영조 44년 5월 26일.

112) 中藥大辭典, p. 1038. 松茸: 爲白蘑科植物松茸的子實體. 甘, 平, 無毒. 治溲濁不禁.

113) 中藥大辭典, pp. 2797-2798. 鰻魚: 爲鮡科動物九孔鮡或盤大鮡的肉. ①醫林撮要 甘鹹, 平. ②隨息居飲食譜 甘鹹, 溫. 滋陰清熱, 益精明目. 治癆熱骨蒸, 咳嗽, 崩漏, 帶下, 淋病, 青盲內障.

114) 中藥大辭典, p. 2285. 雉: 爲雉科動物雉的肉或全體. 甘酸, 溫. 補中益氣. 治下痢, 消渴小便頻數.

115) 신동화, 정도연. 고추장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1. 한국산업식품공학회심포지움, proceeding, pp. 3-20. 고추가 전래되기 전에는 산초(山椒), 천초(川椒), 호초(胡椒) 등을 이용, 매운 맛을 내는 것을 초장(椒醬)이라 하였으나 고추가 도입되면서 고추장으로 정착되었다. 고추라는 이름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의하면 고(苦)가 지금은 쓴맛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불꽃에서 탄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으니 고추를 초(椒)에 고(苦)를 붙여 고초(苦椒)라 적고 고추라 하였다고 한다.

116) 영조 44년 9월 2일.

117) 中藥大辭典, p. 1035. 松節: 爲松科植物油松, 馬尾松或雲南松的枝幹的結節. 苦, 溫. 祛風, 燥濕, 舒筋, 通絡. 治歷節風痛, 轉筋攣急, 脚氣痿軟, 鶴膝風, 跌損瘀血.

아니하는데, 비록 약을 炒洗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찌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것에는 굳게 지키겠다.” 하고, 史官에게 이를 쓰라고 명하였다.

108)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8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985. 通順散: 仙傳外科集驗方. 爲原書“榮衛返魂湯”之異名.

허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576. 榮衛返魂湯: ①主一切痰飲爲患, 專治痰腫. 又治癰疽發背, 流注腫毒. 赤芍藥, 木通, 白芷, 何首烏, 枳殼, 茴香, 烏藥, 當歸, 甘草各一錢. 右挫, 作一貼, 酒水各半煎服.<醫林> ②一名追風通氣散, 一名通順散, 又名何首烏散. 此方宜與十宣散, 相間用之, 並加忍冬藤.<入門>

109) 영조 42년 1월 26일.

치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6월 28일에도 좋지 않아서 탕제를 올리도록 의논하였다 하였고 6월 30일부터 탕제를 올려서, 7월 초에는 점차 회복되어 11일에 환후가 평복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7월 말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약방의 입진기록이 보이며, 12월에는 탕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조 46년(77세)에는 3월에 聖候가 미령하였다고 하고, 6월에는 風候를 이유로 減膳을 명하기도 하였고, 8월에는 몸이 편찮았는데 탕제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寒痰으로 몸이 안 좋았는데 29일에는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영조 47년(78세) 2월에는 약방의 입진도 허락하지 않고, 탕제도 올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때 ‘임금의 마음이 매우 번뇌하여 매번 없는 가운데 일이 생기게 하므로, 온 조정이 항상 어쩔 줄을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18)</sup>. 3월 14일과 15일에 대신들이 상소하면서 탕제를 진여토록 청하였으나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인 다툼과 이로 인한 여러 상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sup>119)</sup>. 4월 23일에도 대단히 번뇌하여 탕제를 거절하고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하였다.<sup>120)</sup> 6월 25일에는 오한으로 몸을 떠는 징후가 있었고, 6월 29일에는 “오늘은 宣懿王后의 忌辰이다. 아침의 御膳에 肉饌이 있었는데, 나의 눈이 침침하였기 때문에 분변하지 못하고 집어 먹었다가 깨닫고서 토했었다.” 하였다. 나이로 인하여 노안으로 눈이 침침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도 忌辰에 소선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평소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도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7월 말에는 가뭄을 민망히 여겨서 탕제를 진여하지 말도록 하고, 11월 16일에는 천둥과 이변의 일로 6일동안 감선을 명하기도 하였는데,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의도된 정치적인 행동이 섞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한다. 영조 48년(79세)에는 1월 2일부터 18일까지 계속하여 약방에서 입진하고 있어 환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3월 11일에는 탕제를 물리친지 4일 쯤이라 하여 그동안 탕약을 진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3월과 4월, 5월에도 영조는 탕제를 물리치기도 하고 복용하기도 하였다. 6월 11일에는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을 비난하며 建功湯을 물리쳤다고 하였다. 7월과 8월에도 임금이 탕제를 들기도 하고, 혹은 탕제를 허락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간절히 청하기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11월에도 보인다. 영조 49년(80세)에는 1월과 2월에 탕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3월 5일에는 建功湯을 날마다 복용하여 효과가 컸다고 하였으며 이후에도 연말까지 탕약을 꾸준히 진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중간에 임금이 탕제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몇 차례 보인다. 사실 탕약을 계속 먹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어서 12월 13일에는 ‘임금이 湯劑 복용기를 괴로워하여, 懸賞으로, ‘탕제를 올리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말을 올리기를 요구하였으나,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영조가 약먹는 일을 매우 괴로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조 50년(81세) 5월 8일에는 儒生과 坊民을 모아 놓고 현상금을 내걸어 탕제의 정지 여부를 묻는 행사를 열었는데<sup>121)</sup>, 5월 10일에는 湯劑를 올리지 않았다

121) “임금이 建明門에 나아가서 儒生과 坊民을 召見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湯劑가 쓴 것을 괴롭게 여겨, 탕제를 정지하도록 말을 잘하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두 자금을 올려 주고 百金을 상으로 주겠다는 영을 내렸으나, 응하는 자가 없었다. 이 때에 이르러 庭中에 북을 매달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理中湯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자는 북을 두 번 치고, 하교가 지나치다고 여기는 자는 북을 한번 치도록 하라.’ 하였는데, 安載圭라는 자가 북을 두 번을 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周나라 成王이 오동잎으로 희롱한 것[桐葉作戲]을 史官이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그대로 <그 아우를> 封하였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다.’ 하고, 이어서 두 자금을 올려주고 백금의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 賓對에서 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일제히 안재규의 외람되고 無嚴함과 또한 功을 바라고 엿보는 마음이 있었다고 아뢰었고, 大司憲 宋瑩中은 人心이 옛날과 같지 않으므로 요행을 바라는 문이 갈래가 많으니

118) 영조 47년 2월 12일(癸未).

119) 영조 47년 3월 12일(癸丑) 權震應의 상소 이후 권진응과 이와 연루된 자들이 귀양을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한 상소가 계속 올라와서 영조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하였던 것 같다.

120) 영조 47년 4월 22일(壬辰)에 올린 李基敬의 상소에서 앞의 권진응을 옹호하자 영조는 대노하여 번뇌하고, 이기경을 庶民으로 만들어 버렸다.(영조 47년 4월 23일(癸巳))

하여 藥院의 세 提調를 現任에서 해직하라는 하교를 내리기도 하였다. 현상금을 걸면서까지 약제 복용의 불가함을 문외한에게 찾기도 하였으나, 이번 하교와 같이 오히려 탕제를 올리지 않은 것을 문책하기도 한 것을 보건대, 영조가 행동거지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에는 임금에게 환후가 있어 내국이 숙직하였다고 하였으며, 완전히 나은 것 같지 않은데 며칠 지나지 않아 8월 1일에는 환후 회복으로 인한 庭試武科初試를 열고 있다. 잠시 호전이 되었다고 하여 임금의 환후가 평복된 것을 기리는 행사를 자주 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조 52년(83세) 1월에는 약방의 입진기록이 나타날 뿐 별다른 질병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영조는 3월 5일 서거하게 되는데, 사망 이틀 전인 3월 3일만 해도 낮에 하교도 하고 의식이 있었는데 저녁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3일 藥房에서 桂橋茶 한 첩을 封入하였던 것을 보면 가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금이 集慶堂에 나아가니, 藥房에서 入診하였고, 桂橋茶에 附子 한 돈을 더하여 달여 들었는데, 또 建功湯에 부자 한 돈을 더하여 달여 들이라고 명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몇 가지 사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임금이 어지러운 증후가 또 일어나 마치 잠든 듯하였고, 한참 지나자 목구멍에서 가래 소리가 작게 나오 숨이 가쁘니, 王世孫이 울며 이은에게 말하기를, “근일 聖候는 가래와 어지러움이 더 심하신데, 喘息이 또 나타나시고 헛소리 등의 증후가 있어, 아주 어쩔 줄 모르겠다. 헛소리의 증후가 조금 그치면 마치 잠드신 듯했던 때가 혹 한나절 또는 두어 시각을 지나는데, 이러한 때에는 茶飲불이일지라도 드시도록 권하기가 어렵다. 오늘은 경들이 入侍하였으니, 醫官을 시켜 진찰하라.”<sup>122)</sup> 하였으며, 이은이 診候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都承旨 徐有隣이 入侍하자 왕세손이 영조의 증후가 어지럼증이 심해서 어쩔 줄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왕세손이 또 옆에서 御手를 주무르며 승지가 들어왔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였고, 도승지가 말하기를, “초지를 꺼내어 대령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傳敎를 쓰게 하였으나 헛소리 같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왕세손은 근일의 例대로 湯劑를 달이도록 하기도 하였다. 저녁부터 병환이 악화되어 가래와 어지러운 증후가 더욱 심하고 눈꺼풀이 열렸다 감졌다 하며 손발의 온도가 여느 때와 달랐다고 하였다. 薑橘茶 두어 술을 드시게 하여 보았더니 溫氣가 있는 듯하다가 곧 다시 차지셨다고 하였다. 왕세손이 의관 오도형을 시켜 진찰하게 하니 “이는 반드시 가래가 막혀서 그럴 것입니다. 百沸湯을 먼저 드시고 桂橋茶에 藿香 한 돈을 더하여 달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sup>123)</sup> 하였다. 왕세손이 임금을 부축하고 손가락으로 백비탕을 떠서 드리니, 임금이 잠시 돌아누우려 하며 작은 玉音에 떨리는 기가 있으면서 말하기를, “茶飲이 왔는가?” 하여, 왕세손이 서유린에게 “茶飲을 빨리 달여 오라.” 하였다. 한참 있다가 임금이 돌아 움직이려는 뜻이 있으므로, 왕세손이 손가락으로 다음을 떠서 드렸다. 두어 술에 이르러 혹 순하게 내려가기도 하고 토하여 내기도 하였는데, 왕세손이 박상덕을 시켜 한 첩을 다시 달여 오게 하였다. 왕세손이 임금을 부축하여 들게 하였는데, 임금이 가래침과 들었던 다음을 토하여 내니, 오도형이 말하기를, “토하는 증세는 막힌 증세에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가래침을 토하였는데, 왕세손이 박상덕을 시켜 桂橋茶를 달여 들여오게 하였다. 이후 손발이 차가워지고 맥도도 가망이 없어졌다 하며, 粟米飲도 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3월 5일 卯時에 임금이 慶熙宮의 集慶堂에서 昇遐하였다.

영조는 83세까지 조선조 임금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재위기간도 제일 긴 51년 6개월이다. 죽기 몇 년 전부터 이미 노환으로 인한 증세를 보이며 탕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갔던 것으로 기록되

이 길을 한번 열어 주면 功을 바라고 엿보는 무리가 아마도 앞으로 잇달아 일어나 것이라고 陳戒하자, 임금이 울게 여겨 받아 들었다.”(영조 50년 5월 8일) ; “임금이 延和門에 나아가 유생을 불러 보고, 湯劑를 진여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다.”(영조 50년 5월 11일)

122) 영조 52년 3월 3일.

123) 영조 52년 3월 3일.

어 있다. 특히 다른 임금들과는 달리 침구치료와 탕약복용을 적절히 조화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침과 뜸만을 오래 시술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sup>124)</sup>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접 사인을 굳이 따지자면 만성폐쇄성폐질환<sup>125)</sup>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조는 노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痲疾인 脾胃症으로 인한 痰飲과 폐의 宣發肅降機能失調로 인한 痰으로 인하여 이미 만성 해수와 객담, 어지럼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사망당시에도 계속하여 가래를 뱉어내고 있었지만 이것은 노화에 따른 自然死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홍성봉은 현기증, 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으로 미루어 폐렴을 사인으로 보고 있으나<sup>126)</sup>, 영조는 그다지 고열, 흉통, 숨가쁨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기침도 약간 나타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아 폐렴이나 결핵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영조의 경우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지만 17세에 마마를 앓은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중한 질환에 걸린 경우는 없었다. 자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심기불안, 비위허한, 해수 등이고, 그 밖에 감기, 안질, 화기, 현훈, 손팔마비, 안질, 산기, 담응증, 객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었다. 팔의 마비, 안질에는 침치료를, 산기, 벽적에는 뜸치료를 하였다. 약물치료로는 해수에 생맥산, 현기증에 성심산, 비위허한에 육군자탕, 객란에 소합원, 반종산, 이종탕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경옥고, 굴강차, 이종진공탕, 인삼속미음, 계고, 도기탕, 오적산, 인삼양위탕, 광항정기산, 통순산, 정기산, 정기천향탕 등을 사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인삼을 특히 많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용한 처

방으로 볼 때 비위기능을 중심으로 한 양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영조의 감신, 소선의 습관과 더불어 오래 사는 비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 6. 결론

1) 현종은 19살 즉위 후 곧바로 효종대왕의 장례와 관련된 논쟁에 휘말려 정신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다. 현종은 남인과 서인으로 갈려 전개된 정쟁에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던 중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을 배척하고 남인들을 기용하여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시점에 현종이 사망하게 되어 서인들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현종의 질병과 치료기록을 검토해 보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생각된다. 현종에게 다발된 질병은 안질과 종기이고 이 밖에 습창, 핵환, 비위허손, 설사, 천식, 복통, 치통, 두통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리 마비, 다리 酸痛, 팔의 통증, 요통, 손가락 질환 등이 나타난다. 20세부터 이미 안질과 종기로 인해 침과 뜸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종기의 부위도 발, 손, 머리, 목 등 온몸에 걸쳐 발병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치료는 주로 침과 뜸으로 하였고, 三里, 絶骨, 中腕, 鳩尾, 風池 등의 혈자리가 언급되어 있다. 약물치료로는 六君子湯, 補中益氣湯 등의 처방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0대에는 거의 매년 안질과 종기로 고생하였던 기록이 보이고 그 치료를 위해서 온천욕도 하였다. 21세에는 인경궁의 초정에서 목욕을 하였지만, 25세부터 29세까지는 매년 온양온천에서 온천욕을 하여 그 회수가 다섯 번이나 되었다. 기록상 온천욕의 효과는 매우 컸다고 하였으나 몇 개월 지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27)</sup>. 30대에는 주로 안질보다

124)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 360. 素問, 繆刺論에 보면 “用鍼者, 隨氣盛衰, 以爲痛數, 鍼過其日數則脫氣, 不及日數則氣不瀉”라고 하여 침치료가 과도하면 正氣를 잃는다고 하였다.

125)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통계청 고령자 사망원인 분석결과(2005)에서 2003년도 고령자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한 만성하기도질환에 포함되는데 특히 최근들어서 흔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이 복합되어 있는 질병이다.

126)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한국인구학회지. 1991. 14(1). p. 42.

127) 金勳. 朝鮮時代 임금들의 溫泉浴과 疾病.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1). p. 76.)溫泉浴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많이들 시행했었지만, 결국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는 종기로 고생을 많이 하였다. 안질의 치료는 주로 침을 이용하였고, 종기는 침으로 고름을 따고 뚫을 뚫었는데, 말년에는 뜸자리에 종창이 생겨서 고생하기도 하였다. 종기가 발생한 부위는 턱, 엉덩이, 가슴, 목 등이 많았다. 안질과 종기가 자주 다발한 것은 外感보다 내부 正氣損傷이 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질은 주로 결막부위의 염증이 급만성으로 재발한 것으로 보이고, 종기는 전신에 발생하고 있지만 얼굴부위에 다발하고 있으며 패혈증을 유발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28세에는 천식이 있었고, 29세에는 설사, 식욕부진, 구역질 등의 비위허손으로 인한 담음증세가 있었으며 34세에도 복통, 설사가 있었다. 현종 34세까지 살았으며, 사인은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한 종창에서 기인한 패혈증과 위장관감염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2) 肅宗은 14살에 왕위에 올랐으나 효종비의 장례 등과 관련된 당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후 換局政治를 통해 남인, 서인, 노론, 소론 등의 봉당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수완을 보이면서 60세까지 비교적 장수하였다. 재위기간은 45년 9개월로 英祖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줄곧 질병에 시달린 편이었다. 주로 앓았던 질병은 心火, 腫氣, 浮氣, 感氣였고, 그 밖에 황달, 두질, 眼疾, 풍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세, 疝氣, 각질, 수족마목, 부종, 설사 등 다양한 질병의 양상을 보인다. 素症인 火症과 心下痞悶, 肝氣鬱結 등의 증세는 정치적 상황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심화증세는 비교적 일찍 나타나서, 28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곤란하며 번뇌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는 40세 이후 꾸준하게 보인다. 56세에도 흥격이 괴롭고 답답하고 숨이 불편한 증상을 보였고, 59세에는 조금만 거동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코에서 열나는 증상까지 있어 구체적인 심장질환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이한 것은 황달과 두질이다. 16세에 걸린 황달은 급성간염으로 생각이 되고 이후 소화기계 질환, 스트레스와 겹쳐서 간기능의 이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유행하였던 두질

은 천연두를 말하며 23세에 앓았지만 잘 극복하였다. 43세의 疝症은 담석증으로 생각이 되며 역시 간기능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57세에는 여러 대신들의 분분한 의견 속에서 溫泉浴을 하게 되는데 현종처럼 크게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다. 眼疾이나 비위증 등의 증세를 보면 속종도 당뇨를 앓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引飲症이나 消渴이 언급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침과 뜸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속종 때의 치료에는 穴자리의 언급이 많았다. 주로 팔과 다리의 주요 穴과 中脘, 臍中 등의 복부 혈자리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치료원리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죽기 직전에 나타난 특징적 증상은 복부가 심하게 팽창하였다는 것이며, 그밖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갈수록 구역과 부기가 심해지며, 咳逆, 肩息, 痰響 등의 증세를 드러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肝과 腎의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인은 肝腎症候群으로 생각된다.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견해<sup>128)</sup>가 있는데, 실록의 기록에 당뇨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증세나 병명이 등장한 적이 없으며, 당뇨합병증이라고 판단될 만한 기록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3) 景宗은 33살에 왕위에 올라 4년 2개월의 짧은 재위기간을 갖는다. 희빈 장씨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정치적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고, 생모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는 비극을 겪는다. 이 과정에 경종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집권초기부터 정권을 장악했던 노론의 강요로 동생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게 되었고 이어진 정치적인 혼란으로 육체적, 정신적 압박감이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된 질병은 스트레스성 心火熾盛이었고 이어 腫氣, 스트레스성 식욕부진과 위장장애, 천연두, 흥역 등이 있다. 특히 심화치성, 심기폭발, 화열 등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타나서 재위 기간 내내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심화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기에 대한 언급도 몇 차례 나타나 있으며 화열과 怒氣를 경

128)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한국인구학회지. 1991. 14(1). pp. 41-42.

계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된 心火, 정신적 압박, 正氣 虛損 등으로 인해 중기증세를 자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2세에 두창에서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경중도 천연두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3세에는 흉진을 앓았다는 것으로 보아 흉역에 걸리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30대에 들어서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것은 이 때 경중이 外感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경중은 37세 8월초에 감염의 증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후 복통과 설사가 그치지 않다가 맥이 낮아지고 음성이 미약해지는 등 陽氣를 잃어가다 37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사망하기까지 다양한 처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열을 치료하면서 열을 치고 瀉下시키는 처방이다. 결론적으로 중기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정기허손과 비위허약의 만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위장관감염으로 사망하였다고 본다. 위장관감염으로 발생한 복통, 설사가 체액의 전해질 대사 이상을 유발하였을 것이다. 고질병으로 생각되는 심화는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 당시 정치적 상황, 연잉군의 치료간섭, 계장과 생감 진어에 따른 증상 악화, 사망 후 노론과 연잉군의 정권인수 등의 정황적 증거로 인해 이후 끊임 없이 경중의 독살설이 제기되었다. 이는 소론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뒤에 이인좌의 난까지 이어지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 정황증거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독살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증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치료약으로 이공윤이 사용한 淸熱下利의 방제가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부추겨서 증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4) 영조는 31세로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정쟁을 겪어 봉당정치에 민감하였다.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정국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펼치면서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 영조는 전대의 세 임금들과는 달리 비교적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큰 정신적 압박감은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섭생에도 노력을 기울여 말년에 이르기까지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인삼을 많이 사용했었다. 주로 앓았던 질병은 소화기계의 질환으로 脾胃虛寒, 痰飲, 설사, 疝氣 등이 있어서 理中湯, 理中建功湯, 五積散, 人蔘養胃湯을 많이 복용하였다. 다음으로 咳嗽, 가래, 上氣, 眩暈, 眼疾, 팔다리 근골격계 질환, 천연두 등이 보인다. 17세에 천연두에 걸렸고, 30대에는 감기, 안질, 火氣, 현훈 등으로 침구치료와 더불어 生脈散, 醒心散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있고, 50세에는 담증으로 근육이 아팠다고 한다. 60대 말부터는 비위허한, 담음으로 이중건공탕, 도기탕, 오적산 등의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였고 이후로도 인삼을 많이 넣은 처방을 꾸준히 복용한 것이 보인다. 이러한 치료와 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영조가 83세까지 장수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말년에는 평소 가지고 있었던 脾胃症으로 인한 痰飲과 폐의 기능 실조로 인하여 만성 해수와 객담, 어지럼 등의 증상이 있었다. 가래와 현기증이 심해지면서 가래침을 자꾸 뱉어내었고 거의 혼수에 빠진 다음 사망하였는데 그 기간이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 사인은 노환으로 추정된다.

영조는 검소한 생활을 즐기며 금주령을 내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素膳이나 減膳을 자주 하여 膏粱厚味の 식사를 절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때때로 탕약을 거부하는 명을 종종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신하들을 견제하는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전후의 임금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조치였다. 이런 적절한 정치술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잘 해소할 수 있었으며, 절제된 생활과 함께 영조의 중요한 건강비결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의 장수비결은 '마음을 편히 하여 잠자고 때로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능히 지탱해 나갈 것이다'라고 한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영조는 꾸준히 약물을 통한 치료와 조리를 지속하면서, 아울러 편안한 마음과 적절한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양생의 방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논문>

1.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 金勳. 朝鮮時代 孝宗의 질병 및 死因에 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2).
3. 李海雄. 朝鮮時代 明宗, 宣祖, 光海君의 疾病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4. 尹漢龍尹暢烈.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1).
5. 金勳. 朝鮮時代 임금들의 溫泉浴과 疾病.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1).
6. 김호. 임금님의 건강일지. 문헌과 해석. 2001년 겨울 통권17호.
7. 柳姬我. 瘧疾의 症狀과 機轉에 대한 文獻的 考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8. 金勳.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9.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한국인구학회지. 1991. 14(1).

### <단행본>

1.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개정증보판. 서울. (주)웅진씽크빅. 2004.
2. 김성권의. 평생가정건강가이드. 서울. 이지케어텍(주). 2003.
3.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4.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서울. 돌베개. 2002.
5. 이이화. 한국사이야기13-당쟁과 정변의 소용

- 돌이. 한길사. 서울. 2001.
6. 이이화. 한국사이야기14-놀이와 풍속의 사회사. 한길사. 서울. 2001.
7.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 集文堂. 2001.
8.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室 共著. 肝系內科學. 4판.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2001.
9.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10.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1-사림정치와 당쟁:선조조-현종조. 서울. 동방미디어. 2000.
11.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2-탕평과 세도정치:숙종조-고종조. 서울. 동방미디어. 2000.
12. 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로병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9.
13. 全國韓醫科大學 心系內科學教室. 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9.
1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神經精神科學. 재판. 서울. 하나의학사. 1998.
15.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 푸른역사. 1998.
16. 全國韓醫科大學 脾系內科學教授 共著. 脾系內科學. 再版. 서울. 아트동방. 1998.
17. 신명호. 조선의 왕. 서울. 가람기획. 1998.
18. 蔡炳允. 增補版 東醫眼耳鼻咽喉科學. 서울. 集文堂. 1997.
19. 해리슨내과학편찬위원회 역. HARRISON'S 내과학. 서울. 정담. 1997.
20. 崔昇勳 編著. 韓方病理學. 서울. 一中社. 1997.
21. 李珩九 鄭昇杞 編. 동의폐계내과학. 9판. 서울. 아트동방. 1996.
22. 김완희. 김광중.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증사. 1996.
23.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重版. 서울. 행림출판. 1996.
24. 辛民教 編著. 原色 臨床本草學. 訂正4版. 서

- 을. 永林社. 1994.
25. 한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9-중세사회의 해체. 서울. 한길사. 1994.
  26. 中藥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4.
  27. 馬蒔 編註.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28. 王冰 編註.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29.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94.
  30.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4.
  31.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32.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33. 洪元植.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34. 陳夢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35. 국사대사전편찬위원회. 國史大事典版. 서울. 교육도서. 1988.
  3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3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8. 實錄廳編纂.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1980.
  39.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法制資料 第110輯. 1979.
  40.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서울. 知文閣. 1968.
  41.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42.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5.

<전자매체>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CD-ROM 韓國歷史 五千年 III <CD-ROM 國譯 朝鮮王朝實錄>. 서울. 서울시스템. 2001.